

제 6 회 한국추사서예대전

韓國秋史書藝大展

접수기간 **2009년 8월 24일 ~ 26일**

(18:00까지, 우편접수시 26일 도착분에 한함)

규모부문 한문, 한글, 문인화, 추사체, 전각

전시기간 **2009년 10월 13일 ~ 20일**

(사상식 10월 13일)

전시장소 과천시민회관 전시실 및 다목적 홀

시상 대상 - 1명(상금 1,000만원)

최우수 - 1명(상금 500만원)

우수상 - 4명(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 - 8명(상금 각 50만원)

특선 - 50명(상금 각 10만원)

입선 - 다수

문의 02-504-6514 www.gccc.or.kr

1부427-882 경기도 과천시 영랑동 49번길

한국추사서예대전운영위원회



2009
7

Vol. 204 July

우리문화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개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위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09.7 우리문화

통권 204호 July



표지 | 포천문화원
미군장병들의 부채춤 체험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심(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 02 칼럼
- 06 연합회 소식
2009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
- 10 문화원 이야기
어르신문화학교
12 2009 향토사 대중화 사업
16 문화역사마을
20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
- 23 문화원을 듣는다
금산문화원_ 농촌문화의 부활을 꿈꾸며
- 26 특집_ 달려라 여름아
29 여름휴가 중 만나는 축제와 지역경제
32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가는 캠프만들기
35 우리선조들의 여름나기
도심의 수상한 놀이터에서 휴가 즐기기
- 38 문화원 탐방
노원문화원
- 42 기획
혼인례(婚禮)
- 48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57 우리문화 소식
59 신간소개

| 칼럼 |

문화원의 위상과 문화원장의 역할

현안과제와 역할 기대

1) 지역문화의 당면 현안

- 문화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 문화영역 주체간의 파트너십의 확대
- 지역간 불균형 극복과 문화주도층 양성

2) 지역문화 활성화 조건

- ① 지역문화 先導 기능 담당할 주도집단 형성
- ② 중장기 계획과 방향 정립
- ③ 지역문화자료의 बैं크
- ④ 그 방향을 확실하고 가능하게 할 싱크탱크와 네트워크

3) 역할 기대 범위

- 주인, 철학 없이 방황하는 지역문화, 분산·소모·중복적 문화활동은 문제
- 객관적인 지역문화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자료 बैं크),
- 문화의식 선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적극적 인식과 가용 인력(싱크탱크)
- 싱크탱크, 정책제안과 제도화 마련을 위한 조직
- 문화분권화의 선도역할

문화원(장) - “지역문화의 先導者”

- 지역의 도덕·문화·지성적 보루; 문화원은 지역의 상징, 대표적 문화센터
- 문화활동의 총합화, 기능 분화를 주도하고 총괄(통섭)
문화원은 분산·소모·중복적 문화활동을 총괄·조정·선도하는 기구로
- 미래의 문화원 운영의 의식 변화
진보된 지역문화조사와 교육프로그램, 자료의 주민공유시스템 마련
과거 지적 권위, 교육과 덕목 중시 → 참여, 체험, 비판
객관과 명분, 시민의 동조가 없으면 “官制” 단체로 先導力 상실
전통, 과거지향보다는 현재·미래적 관점의 문화가치가 부각



이해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문화원(장) - "문화자료뱅크 지점(장)"

• 문화자원 발굴 · 정리는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 결정하는 기본 요소

- ① 문화콘텐츠 발굴에 소홀
 - ② 자원화 가능한 지역문화 형상화 부진
 - ③ 자기식의 문화자원 활용 방향 없고 결국 타 지역 모방
 - ④ 경쟁력 감소, 지역민의 자긍심 저하의 악순환 계속
- 21세기 문화는 H/W보다 S/W · C/W 중점이라는 공동된 인식이 확산
 -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나 정책이 아직도 우선
 - 콘텐츠 확보 → 소프트웨어 개발 → 하드 구축이라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
 - 이 과정에서 기초자원 조사정리, 분석, 활용방안까지 고려하는 자세가 요청됨
- ⇒ 문화원의 역할과 기대

문화원(장) - "네트워크의 거점(핵)"

- 역할분담과 상생적 구조의 인정
교육, 창작, 연구, 운동, 자료전시
- 싱크탱크 인력 풀, 아웃소싱
지역학은 실현가능한 '학제간 연구' 시스템이고 성공 확률이 높다(?).

※ 전문인력간 연계와 파트너십不在(三無)

- ① 인간적 교류 無
- ② 상대방의 전문성 고려 無
- ③ 동상이몽, 상호이용 대상(?) 공생해야 한다는 생각 無

지역문화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소통

과 대화 또한 절실하다. 여전히 지역문화 기초자료의 수집 · 정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가 상호 연계성, 혹은 서로의 기능과 역할 인정의 측면에서도 편차가 심하다. 주도권을 가진 계획 · 설계자가 어떤 성향이나에 따라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는 무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효과적인 표현능력을 잃고 일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콘텐츠 정리는 소프트·하드웨어의 연계체계 속에서 활용의 방안을 고려하고 콘텐츠를 정리하여 주고, 이를 응용할 개발자들은 콘텐츠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수적으로 제한되고, 객관성을 잃은 지역문화 콘텐츠가 임기응변적으로 활용 마니아들에게 주어졌을 때, 지역정체성을 왜곡·궤멸하거나 차별성 없는 활용의 모습이 구체화되게 되는 것이다(축제와 이벤트, 문화재 복원정화(건축), 하드중심 관광개발 등). 결국 분명한 것은 이들 삼자는 결코 서로 별개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일 때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객관이나, 상징성 · 정체성 · 경쟁성 · 투자효율성 등등도 점검이 가능할 것이고, 여러 유형별, 그리고 수요층의 수준별, 나아가 활용 방향을 감안한 콘텐츠 발굴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문화교육과 문화원

① 지역축제와 지역문화 | 현대사회의 지역축제는 지역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상품화라는 효용적 기능을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선행조건'은 있어야 한다. 즉 아무리 그러한 요청이 팽배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일체감을 되살리고 정체성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역축제의 유래는 ① 지역관련 인물 ② 유적 및 역사 ③

민속 ④ 자연 및 물산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모두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특성을 표상하려고 한다. 그런데도 왜 지역 특성이 살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일까? 만약 비평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이들 지역축제가 대부분 명칭에 불과할 뿐 실제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의미를 되살려 내지 못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바로 지역의 특수성을 부각시킨 역사·문화 소재 발굴을 통한 동질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축제가 바로 지역문화의 대중화와 자료 발굴, 홍보의 수단이며, 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축제는 자기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이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의 과정이며, 전통과 현대문화의 연계(“교육의 장”, “전통문화 향수의 장”) 기회인 셈이다. 이는 지역문화의 대중화와도 결코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향토축제는 다른 축제들과 달리 무엇보다 해당지역 문화의 동질성과 특수성을 공감하고 재생하며, 교육하고, 계승하여 상징하는 중요한 場이다. 즉 축제는 다양한 향토문화소재를 수요계층별로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흥미롭게 전승하고, 현대의 가치로 승화할 기회이자 다른 지역과 경쟁할 문화자산의 발굴정리 기회이다. 적어도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의 축제를 즐기는데 있어서 참여주체로서의 자긍심이나 당당함을 느끼고 스스로 교육의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역축제의 가장 큰 한계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축제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과 기회를 부각시키고 시험하는 시도이자,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아이디어의 경쟁과 모델의 제시, 성패의 경험들은 각 지역 주민들의 문화의 식과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유용한 공동체적 경험의 장이 되는 것이다.

② 문화예술 창작과 문화원형콘텐츠: 창작예술과 지역문화 대중화를 상반시켜 문화예술 부분 중 무용을 예를 들

어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무용예술의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향토문화자원 활용의 영역은

- A: 지역문화 소재를 선택하여 예술로 창작하는 방안
- B: 지역의 전통문화 중 무용적(춤) 요소를 찾아서 계승하는 방안

일 것이다. 즉 A의 경우는 문화연구자들과 연계하면서 이루어질 것이고, B의 경우는 무용예술가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향토문화 연구자가 무용 부면에서의 활용 여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기초자료 정리에서 무용의 측면은 생략될 가능성이 많다.

한편 무용 연구가들도 무속이나 민속놀이에서 무용적 요소들을 표집하는 노력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고, 피상적일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우리가 주목하려는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아무리 예술적 기교가 배어있다고 하더라도 무용가들이 기초자료 소화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지역민들로부터 ‘정체성이 담겨진’ ‘자신들의’ 예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현대문화는 점차 다양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이로 나다운 것, 나만의 것을 추구하고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예술 활동이 그치지 않는 생명력과 추진력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특히 지역문화와 예술에 있어서 그러한 창의적 생명력은 더욱 강하고 끈끈한 전통으로 포장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무용에 있어서도 지역적 특성이 살아 있는 무용예술 소재나 기초자료들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역사와 문화 경험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남아 전해졌는지를 무용가의 입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혹여 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것은 무용부

분의 전통적 자원이다”라고 어지럽게 말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무용예술가들이 전통적·지역적 문화 기반을 도외시하면서 “왜 무용분야를 무시하고 외면할까?”라고 반문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지역문화와 지역사, 지역자료의 연구를 줄곧 강조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나 문화만이 우리의 관심영역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더불어 해온 입장이다. 또한 연극과 미술, 사진과 문학, 음악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지역문화를 동반 소재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같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더 큰 기대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예컨대 “오페라 이순신”, “한국의 고향 사진전”, “백제사 연극” 등이 또 다른 매력으로 문화 내용과 예술성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킨 사례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③ 지역문화대학과 지역학 교육 : 끝으로 지역문화교육을 통한 ‘대중화의 꽃’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지역문화학교의 개설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지역사랑으로 이어져 정주의식을 가진 시민이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사(향토사, 지역학) 교육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속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가진 지역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창구가 되는 것이다. 각 지역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화 환경, 역사변천이 각기 상이하고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 자료는 어느 한 분야 연구자의 특수한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연구 지표가 되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분야와 문제의식별로 다룰 수 있고, 그런 까닭으로 여러 분야 종사자들이 합심하여 찾아야만 종합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지역의 지리, 생태, 자원, 환경,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등등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로 결합된 것이 바로 지역문화이다.

지역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유관 기관(연구소, 전문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실제 교육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내용별 전문화된 교육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관련 인사들의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자원 특성별, 참여자 특성별, 교육내용별 구분에 따라 다양한 교육커리큘럼, 교재와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바로 지역문화 ‘시민대학’ 운영이다. 주민의 지역사랑 및 정주의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학 관련 인문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시민문화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제공될 수 있다.

시민문화대학, 혹은 지역문화 교양문화 교육을 지역을 소재로 한 ① 강과 산, 그리고 바다 ② 사람들의 기질과 심성 ③ 문화유산 ④ 정신문화 ⑤ 민속문화 ⑥ 이야기와 노래로 본 지역문화 ⑦ 문화예술 ⑧ 지역개발 ⑨ 주민의 식과 미래상 등등의 다양한 시민문화 교양강좌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 준비할 일은 지역별 특성을 철저히 반영한 커리큘럼(프로그램) 개발, 지역학 교재의 발간(계층별 교재), 지역학 강사의 확보, 학습동아리의 양성 등등이다. 이는 문화연구자와 교육전문가, 지역사회 행정가 등 관련 주체들이 연합하여 추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학, 향토사, 지역유적 답사, 지역문화 정신의 이해 등 지역별로 특화된 강좌를 지역문화 연구자와 인문학 연구자, 그리고 지역 내 교육현장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등이 공동토의를 통해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문학 연구자는 관련 연구를, 교육 전문가는 연구결과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강좌를, 예술가는 지역민의 창작과 문화향수를 연계 발전시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문화원장 참여

지난 6월 25일(목)부터 26일(금) 양일간 2009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개회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원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들께 문화원 현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통하여 상호간 교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정체성 확립의 공감대를 넓히어 문화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교양강좌와 현안토론회 및 임시총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틈틈이 친교의 시간을 활용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03년 이후 6년만에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 개회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향토문화의 본산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온 지방문화원장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추진하는 하나하나의 사업이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으로 자리 잡는 데 초석이 될





연합회 소식

2009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

것임을 믿는다고 말하며 '전국각지에 있는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각 지역 환경에 적합한 문화적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 하며 문화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였으며 특별히 시도별로 참석 문화원장들과 기념촬영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옥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선비의 삶과 선비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휴식 시간을 갖은 후 '문화예술기관 CEO론'이란 주제로 이종덕 성남아트센터 사장의 강의를 있었다.

정관개정건으로 임시총회 열려

첫날 6시부터 올림픽아홀에서 임시총회가 있었다. 임시총회는 성원보고에 이어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개회선언과 인사말로 그 시작을 열었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원장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하며 '국고예산과 기금 사업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 불황 가운데 지방문화원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제1호 의안인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변경의 건과 제2호 의안인 지방문화원 정관(표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이어 기타토의로 임시총회가 마무리되었다.

문화원 현안에 대한 대토론회

26일(금)에는 이홍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의 사회로 문화원 현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1주제로 문화원 재정확충에 관한 토론 - 패널 :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채대진(문경문화원장) 정주환(거창문화원장) - 이 있었으며 2주제로는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토론 - 패널 :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염도호(강릉문화원장) 김봉식(안산문화원장) - 을 갖은 후 3주제로 문화원 위상과 문화원장 역할에 관한 토론 - 패널 : 이해준(공주대 사학과 교수) 정형철(보성문화원장) 정창환(정읍문화원장)이 있었다. 예년에 비해 열띤 토론으로 많은 문화원장의 호응을 얻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원장들의 기념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원 간담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분권교부세 지속 등 해당부처와 협의하겠다.

지난 6월 2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원간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09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의 개회식을 마친 뒤 오후 2시40분부터 30여분간 지방문화원의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와 장관의 답변 등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수 회장 등 임원들은 ▲금년 말 폐지되는 분권교부세의 지속 ▲2005년 지방에 이양된 지방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환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지방문화원 지원예산이 쉽게 없어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분권교부세 및 지방이양 문제 등은 관계 부처와 논의 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서울 강남문화원 설립에 관여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문화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만이 아니라 기업체 후원 등도 중요하다. 민간부문에서 지원을 받은 실적을 갖고 정부에 도와 달라고 목소리를 내셔도 된다”고 했다.

또한 전국 224개 조직을 갖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민이 문화를 통해 마음이 행복해지도록, 지역마다 특색 있고 차별성 있는 문화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정부도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광무 문화예술국장, 송병호 지역문화과장, 김규원 정책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2009 전국문화원장 세미나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님과 전국의 문화원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구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하나로 결집되어 OECD 국가 중 제일 먼저 경제회복의 길로 들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지도자로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문화원은 전국적으로 2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지역문화가 마르지 않도록 노력해 온 성과물로 때로는 문화의 강물이, 때로는 웅달샘 역할까지 하면서 우리문화의 맥을 지켜 왔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향토문화의 본산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온 지방문화원장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추진하는 하나하나의 사업이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으로 자리 잡는 데 초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을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 생활 속의 문화체육 활성화, 국민공감 국정홍보 등 열개의 역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등 우수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각지에 있는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각 지역 환경에 적합한 문화적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 6. 2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문화원
이야기
부산남구문화원

통기타의 선율을 따라서 부산남구문화원의 어르신들을 만나다

통기타의 선율이 흐르는 부산남구문화원

통기타 음악. 전자음악에 익숙해진 요즘 친구들에게는 어찌 보면 다소 밋밋한 음악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무거움을 떨친, 수줍은 소년·소녀의 노래와 다소 어울림직한 통기타 선율. 6월 중순 여름의 문턱에서, 통기타의 선율을 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르신들을 만나보았다.

휴가철을 앞둔 부산역 광장. 이른 관광객들과 활기찬 부산시민들의 모습에서 덥지만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찌는 듯한 더위가 물씬 풍기는 거리와 아파트 숲을 지나 2008년 개원한 새내기 문화원 '부산남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을 찾았다. 문화원은 남구 용호동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일주일 중 수업 날 오기만 기다려요

제일 먼저 '실버 통기타 앙상블' 강의가 진행되는 대강당으로 향했다. 당신들의 체구만한 기타를 짊어지고 강당으로 하나둘씩 들어오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함박웃음을 짓고 계셨다. "뒤가 그리 즐거우세요?"라고 묻자, "일주일 중 수업 날 오기만 기다린다, 친구들 보는 게 즐겁다"며 답한다. 좌석이 채워지자 곧바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30대의 풋풋함, 박력이 묻어나는 한기현 강사의 열강이 시작되었다. 화이트보드를 빼곡히 채워가며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들을 쏟아낸다. 어려운 용어를 필기해가며, 차근차근 수업을 따라가는 어르신들을 보니 '나도 음악 공부 좀 할 꼴'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어지는 '에텔바이스' 노래와 기타 선율. 아직은 어르신문화학교의 풋풋한 새내기이지만 어르신들의 자세와 표정만큼은 프로였다. '실버 통기타 앙상블' 담당 이문영 사무국장은 "올 한해 기타 연습에 최선을 다하여 연말에 꼭 좋은 무대에 서고 싶다. 부산

지역 어르신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한데 모여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도 갖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와 수강생들의 열의가 여름보다 뜨겁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경험 속의 지혜를 생활 속에 녹이는 어르신들

요즘 통기타 음악은 대학가 동아리나 소극장 등에서 간간히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 예전부터 젊음의 상징,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통기타. 어르신들의 다소곳한 손길에 울려 퍼지는 기타 선율은 젊음, 자유가 아닌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예부터 어르신들은 젊은이에게는 없는 지혜가 있다고 전한다.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그들의 생활 속에 녹여 활용하는 것. 바로 어르신문화학교가 지향하는 어르신들의 향기롭고 풍요로운 생활이 아닐까.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산남구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의 힘찬 날개짓을 보며 장차 펼쳐질 그들의 비상(飛上)을 짐작케 한다. 그들의 힘찬 기운을 느끼며, 나아가 전국 어르신문화학교의 활약도 기대해본다.

끝으로 멋진 한편의 시를 헌정해주신 부산남구문화원 이문영 사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정선영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학교 담당



부 산 남 구 문 화 원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를 쓴다는 건 어려운 작업이고, 내 생각을 모두 펼쳐 보일 수 없어서 아쉽다.
그렇지만 그들의 꿈과 열정만큼은 노래하고 싶다.
기타를 통기타며,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기타를 통기타며
〈실버 통기타 앙상블〉을 위하여
이문영(부산남구문화원 사무국장)

함성과 박수가 아니라도 좋으리라
빛나는 음악이 아니라도 좋으리라

그대와 내가 통기는 소리에
별빛 아래 은빛 물고기들이
영혼의 산란을 하고 있구나

그대와 내가 어울리는 곡조에
평생 가로등으로 서 있을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구나

음악이 풀풀 피어나는 신작로
생의 후반기를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사람의 따뜻함에 감사하리라
기타를 통기타며
기타를 통기타며



2009년 향토사 대중화 사업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강화,
방법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향토사 대중화 사업 3년을 맞으며

지역의 고유문화인 향토사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향토사 대중화 사업이 벌써 3년째를 맞이하였다. 돌이켜보면 딱딱하고 어려운 향토사를 대중화 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유독 어려웠던 것은 참여 대상과 사업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와 사업 진행에서 느꼈던 경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았다.

어떤 일을 하다보면 의욕이 지나치게 앞선 경우가 있다. 향토사 대중화 사업 역시 너무 지나친 의욕으로 인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깊이 있는 고민보다는 지역 현실을 감안한 사업 방향이나 방법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민을 사업 초반에 하지 못했던 것 같다.

향토사 대중화 사업 진행에 있어 우리회가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참여 대상이다. 그동안 일반인이 느껴왔던 향토사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역동적이면서 발랄함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 참여 대상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보다 강화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계층 가운데서 본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지역의 청소년들이다. 기성세대를 위한 교육 보다는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향토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다.

어린 시절에 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향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지역을 떠난 뒤에도 지역문화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자기가 태어나 자랐던 지역에 어떠한 문화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린 시절에 향토사에 대한 교육



부재가 나온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올해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보다 강화하였다. 교육 방법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였다. 가령 아이들이 연구자가 되어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고, 뮤지컬 배우가 되어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노래와 연기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히 향토사기는 물론, 교사와 다양한 전문가를 사업에 참여시켜 교육의 질을 보다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4대강 유역의 향토사 대중화 사업

이러한 기획 아래 금년도에는 그동안 해오던 향토사 대중화사업과 4대강 유역의 향토사 대중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3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지역의 문화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토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 또한
게을리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향토사와 친해지고,
지역 문화에 대해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년 전부터 지속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이미 31개 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사와 교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향토사를 교육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의 향토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영상자료와 만화책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문화원의 경우도 있다. 곳곳에 숨겨진 농기구를 아이들이 직접 조사하여 다른 청소년이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는 문화원도 있다.

4대강 유역의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우리의 강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강좌를 문화원의 사정에 맞게 개설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강의 문화는 단순히 강과 관련된 문화이론 교육 이외에 자연생태, 포구와 장시, 시대별 강의 변화 양상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에서 행해지던 민속놀이와 민요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4대강 사업은 1차 후보사업 대상이 선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조만간 15여 개의 문화원에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토사를 접할 수 있게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지역의 문화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토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 또한 게을리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다양한 향토사 교육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향토사와 친해지고, 지역 문화에 대해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에서는 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종료에 시점에 맞춰 청소년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전시회와 교육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향토사 대중화 사업 종합 발표회가 그것이다. 네이버에는 '향토쟁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년째를 맞이하는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그러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고민의 출발이 단순히 대중화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문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향토사를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어찌 보면 우리가 모르는 향토사의 또 다른 의미를 찾는 일련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중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여름휴가,
유교문화 체험하러
정읍 원촌마을로 오세요”





정읍 원촌 문화역사마을 준공식 개최

금년 여름휴가를 선비문화의 전통과 문화유적이 즐비한 정읍시 원촌마을에 가면, 한옥에서 숙박하면서 자녀들과 탁본 등 유교문화체험과 수증생태 관찰 등을 즐길 수 있다. 호남의 3대 명당이라는 수려한 마을 경관은 덩이다.

정읍문화원(원장, 정창환)은 지난 6월 16일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에서 3년에 걸쳐 추진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정읍문화원의 은빛종합연예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업관계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이번에 신축된 다목적체험관 개관식과 기념식수, 다과회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준공식은 강광 정읍시장 등 관내 주요 기관장과 원촌마을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문화역사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안성, 원주, 진천, 서천문화원장과 전북도내 문화원장들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축하했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준공식 격려사에서 “문화역사마을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문화와 역사자원이 잘 보존되어, 마을수입도 높아지고 살기좋은 마을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촌마을은 이사업을 통해 마을회관과 다목적체험관을 신축했다. 마을회관(113m²)은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여가활동, 마을행사나 단체손님을 위한 식당 등의 용도로 쓰인다.

또 한옥으로 지은 다목적체험관 (95m²)은 방문객을 위한 다도 등 체험프로그램과 가족단위의 숙박시설로 활용된다. 특히 다목적체험관의 뒷편으로는 수백평의 연못이 한눈에 들어오는 등 원촌마을의 수려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리에 지어져 운치를 더하고 있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준공식 격려사에서
“문화역사마을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 면서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문화와 역사자원이 잘 보존되어,
마을수입도 높아지고 살기좋은 마을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 본격적으로 추진

원촌마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7억원과 정읍시의 지방비 3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15~30억원이 지원된 타지역 문화역사마을 사업과 비교하면 예산규모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칠보 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 등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굴직한 사업과 연계되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시너지효과까지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목적체협관의 경우 부지는 타부처 예산으로, 건물은 문화역사마을 지원예산으로 지어졌다.

또한 마을규약 제정과 마을조직의 활성화, 마을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민교육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원촌마을이 지원예산에 비해 매우 내실있게 추진된 것은, 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민갈등 사례가 전혀 없었고, 마을 주민의 단결력이 있어 가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창환 정읍문화원장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조정능력,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건축가 조정구, 마을사업 계획과 운영을 책임진 성균관대 건축과 신중진교수와 같은 대학의 한기택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열정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원촌마을에는 유교문화의 산실인 무성서원과 송정(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33호)을 비롯한 후송정·한정 등 정자 10여개, 필양사·송산사·시산사·영모당 등의 사당, 무성리 석불입상(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57호), 무성리 삼층석탑(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58호) 등의 문화재가 즐비하다.

마을입구에는 태산선비문화사료관이 있어 이 지역의 선비문화와 유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사진자료를 곁들인 선비문화·민속문화 설명판이 설치되었고, 탁본·그림·문서·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무성서원의 모형도 있다. 사료관 앞에는 이 지역 출신이고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을 지은 정극인의 동상과 상춘곡 가사비가 세워져 있다. 원촌마을의 유래는 '서원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호남의 3대 명당으로 불릴 만큼 풍수가 뛰어난 마을이다.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 이주민 한국어 · 문화이해 교육사업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20개의 지방 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이주민 한국어 · 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문화원에서도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결혼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6월 25일(목)~26일(금) 양일간 열렸던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에서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정책과 그 외 다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글로벌 코리아’ 2009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

지난 6월 25일(목) ~ 26일(금)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주최한 <2009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복지부 소속 다문화가족센터 외) 실무자와 관계공무원, 다문화가족 700여명 등을 대상으로 평택대학교와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어윤대 대통령직속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뿐만 아니라 학계의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글로벌 코리아’ 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행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활동과 각종 강의, 학술대회, 사례발표, 다문화전시부스운영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대상이 다양한 만큼 세션을 나누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첫째 날 남서울대학교에서 다문화가족의 공연으로 시작된 대회는 <학술대회>, <다문화사업사

레발표 및 토론), <다문화가족 한국 생활기>의 3개 세션으로 나누어 개인별 필요한 세션을 선택해 들었으며 둘째 날, 사업 실무자 등은 주로 남서울대에서, 다문화가정 등은 평택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남서울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결혼이민자 해외 정책 동향 및 사례에 대한 강의, 다문화 끝드벨이 진행되었고 평택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통번역 인력 양성 및 다문화언어발달에 대한 특강,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과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부처별 다문화정책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과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2009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로 복지부와 법무부, 여성부 공동으로 전국 결혼이민자 전수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및 사회 통합도 측정을 하게 된다.

조사는 부처 공동으로 외국인주민 거주 실태조사(’09.5월, 지자체 작성) 결과 생성된 다문화가족 명단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및 현지 조사원을 활용하여 전국다문화가족 가구 방문에 의한 응답자의 자기기재식 조사(설문지는 10개 국어로 번역)로 이루어진다.

조사결과를 통해 법무부에서는 국적, 지역, 예산 및 행정 투입과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 적응 등 진척상황 지수 비교를 통해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도를 측정하고, 복지부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일반 특성, 경제상태, 생활양식 등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문화가족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부에서는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루어졌으나 과거 조사방법이 표본조사였는데 반해 올해 실시되는 조사는 전국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이며 이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이주민정책 관련 정부 부처

	주요 업무	주요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추진 ○다문화교육인력 양성사업추진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사업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연구 	문화예술교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정책 추진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사업 외) 	국어민족문화과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출입국 관련사항 및 외국인 인권관련 사항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예정자 사전오리엔테이션, 결혼이민자 배우자교육 ○전국 다문화가족 기초현황 및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다문화가족과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능력시험 관리 ○일반외국인 및 고용특례자 입국시 취업교육 운영 및 지도 관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언어지원, 출국지원 등 사후관리 	외국인력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교육복지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세대농어업인 지원 ○농촌다문화가정지원 	농촌사회여성팀
여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 프로그램 운영 ○이주여성보호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권익기획과

현재 이주민 관련 정부 부서는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 △가족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이주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여성부,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다루는 노동부, △문화를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를 통합하는 행정안전부, △농촌이주여성을 다루는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있다. 올해 초 국무총리실에서는 정부 부처별 다문화사업 중복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부처별 다문화정책을 조정하는 중이다.

이민아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교육사업 담당



| 문화원을 듣는다 금산문화원 |

농촌 문화의 부활을 꿈꾸며 문화적 욕구와 금산문화원



1. 제야의 종소리_ 풍각쟁이
2. 금강민속축제
3. 금강민속축제_ 농바우 끄시기
4. 금강민속축제_ 농악
5. 장동이달맞이축제_ 유등제
6. 삼꽃문화행사
7. 산꽃축제_ 송계지계놀이





금산의 문화적 향기는 문화원을 통해

충청도 산골 마을 금산 하면 ‘인삼’을 연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 중에 금산문화원을 통해 문화적 향기를 즐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4년 전에 금산문화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대단하다는 것이었다. 연극에서 무대와 배우만큼 중요한 요소가 관객이듯이 스스로 기량을 닦고 예술적 갈망을 충족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예술적 성과를 표현하고 싶어 했고, 금산문화원은 내가 취임하기 전부터 회원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발산하는 훌륭한 창구 노릇을 이미 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금산문화원에 모여 단체를 이루고 활동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익히고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금산문화원 내 18개 단체들은 남·녀·청소년 풍물단, 서예, 한국화, 고전무용, 판소리, 시니어 합창단, 주부 난타 공연단들과 여러 시 동인들의 모임,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단체까지 다양한 장르의 우리 문화를 공부하고 즐기는 회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어느 지역이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량을 상승시키는 단체활동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금산문화원에서 이런 활발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스스로 훌륭한 시인이면서 문화와 예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안용산 사무국장이 한 자리에서 20년 넘게 희생에 가까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무국장이 존재하기에 안국장의 진심을 이해한 많은 사람들이 금산문화원으로 모여들었다.

일반적으로 다소 배타적이고 유아독존적 자세를 갖고 있는 문

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숙여가면서 금산문화원의 기치 아래 모여 같이 활동하는 것이 금산문화원의 ‘힘’ 이라면 금산문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 문화예술인들이 금산문화원과 나 개인적으로는 전국 최고의 문화원 사무국장이라고 자부하는 사무국장을 믿어주었기에 그 힘이 가능했던 것이다.

금산문화원의 자부심

‘금산농악보존회’는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한 기록을 갖고 있고,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토리패’는 각종 전국대회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대상을 움켜쥔다. 서예가 일강 전병택선생의 지도를 받는 서예팀 ‘금곡서예’는 국전 입선은 물론 여러 전국 규모의 컨테스트에서 입선은 항상, 때로는 심심치 않게 대상을 타기도 한다. 연화 이종필 선생의 지도를 받는 한국화 팀인 ‘창현회’ 또한 5-6명의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전국적 규모의 컨테스트에서 큰 상을 휩쓸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고향님 선생과 신재자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판소리팀 ‘충각쟁이’와 고전무용팀 ‘춤사랑’은 이제 아마추어의 딱지를 떼고 입문하는 회원들을 지도하는 ‘사범’의 경지에 까지 이르렀다. 시동인 모임인 ‘좌도시’는 국민 소리꾼 장사의 선생의 노래말을 여러 작품에 제공할 정도의 예술적 향기를 인정받고 있다.

이쯤 되면 금산이 인구 6만도 안 되는 산골 마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예술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에 금산문화원이 있다. 내친 김에 조금 더 자랑을 하자면 금산문화원은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 중 하나로 발돋움하려 하는 ‘금산인삼축제’를 비롯해서 금산의 자랑 중 하나인 4계절 축제를 주최, 혹은 주관하고 있다.

게다가 그 축제들이 구전되는 지역의 역사와 설화를 발굴하고



고증해서 현재에 펼치는 작업을 통해 새롭게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금산문화원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다. 정월대보름에 연리목 팽나무가 있는 장동마을에서 '장동달맞이축제'로 시작해서 봄에는 산안동산에서 '보곡산골 봄꽃 축제', 여름에는 금강변에서 무형문화재들과 한판 놀이판을 벌이는 '금강민속축제'를 벌인다. 그리고 가을의 축제로 그 유명한 '금산인삼축제'가 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자랑거리 하나는 지역의 민속과 설화를 정리해서 꾸준히 책으로 펼쳐내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금산문화원은 마을지로서는 전국의 어떤 마을지와 비교해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책자들을 여러 권 발간한 바가 있다. 물론 지역의 저명한 민속학자 강성복 선생과 풍수를 학문의 경지로 이끌어낸 권선정 선생이 있다는 것이 지속적인 저술활동의 직접적인 동기이다. 그렇지만 이런 훌륭한 분들이 정을 붙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금산의 문화와 민속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문화적 터전을 금산문화원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책들이 불과 권당 일이천 만원의 예산으로 제작되었다고 말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아닌가?' 하는 대답이 돌아올 정도로 금산문화원은 인력과 자금의 뒷받침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작지만 꾸준한 공로를 쌓아왔다.

농촌문화의 부활을 꿈꾸며

이처럼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낸 '힘'을 피폐해가는 농촌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금산문화원이 계획한 프로그램이 바로 '삶꽃문화사랑운동'이다.

우리네 농촌은 마을마다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있었고, 우리 조

상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흥(興)을 추구하고 즐기는 아름다운 문화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농촌에 남은 것은 일흔 살이 넘는 '젊은이' 들뿐, 전통과 문화는 찾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마을에 들어가 '문화의 힘'으로 '흥'을 붙여 넣고 다시 동네가 활기찬 마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고 싶었다.

한 달에 한 마을씩을 선정한다. 좋은 날을 받아 금산문화원의 모든 단체가 대거 참여해서 그 마을에서 즉흥적인 작은 축제가 벌어졌다. 풍물팀은 흥을 돋우고, 고전무용 팀은 춤을 추었다. 판소리팀은 노래를 부르고, 시인들은 마을의 시를 지어 헌정했다. 합창단은 이 시에 곡을 붙여 가는 마을마다 마을의 노래를 만들어 주고,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불렀다. 서예팀은 그 시를 멋지게 써서 족자에 담아 기증하였고, 한국화 팀은 즉석에서 마을을 상징하는 꽃을 그려주었고, 고명한 화가이자 무엇이든 만드는 '신의 손'을 가진 전병만 사업과장은 마을의 액을 마고 복을 주는 '숫대'를 만들어 설치해 주었다. 마을 주민들이 준비해준 부침개와 막걸리로 목을 축여 가며 흥겹게 놀다 보면 어느새 해는 서쪽으로 넘어간 뒤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너무 흥겨워하며 후렴 잔치까지 원했고, 우리는 '고생은 했지만 보람이 컸다'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금산문화원의 생일을 기념하는 '금산문화예술축제'에 1년간 방문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그 마을의 노래들을 무대에서 함께 부르며 멋진 흥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을 잊지 않았다.

금산문화원은 안팎으로 어려운 제반 여건의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작은 노력을 계속해서 농촌문화의 부활이 가능한 시범적인 활동을 만들고 전개, 발전시키려 한다. 전국의 한국문화원 연합회 회원들과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호택 금산문화원장

특집 | 달려라 여름아

여름휴가 중 만나는 축제와 지역경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지역이 가진 차별화된 제반 환경에 기반한 축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Positioning). 오늘날의 여름휴가 패턴은 가족여행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가 단순한 여가, 오락의 기능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형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 축제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은 물론,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욕구까지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보령머드축제

최근 우리나라의 주 5일 근무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삶의 질을 증시하는 가치관의 확산으로 가족단위의 참여형 관광형태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여가문화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관광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1995년부터 해마다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여 지원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차별화된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들어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과 바다의 일반적인 피서지에 식상함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한 지역 축제 현상으로 눈을 돌리는 여름 휴가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여름 지역축제는 여름휴가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휴가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에 만보령 머드축제를 필두로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지산벨리 록페스티벌, 함양 산삼축제, 정남진 물축제, 출추는 태안 바다축제 등 크고 작은 지역 축제가 여름 휴가객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 중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보령머드축제는 (2009. 7. 11 ~19) 대한민국의 명품 축제를 넘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난 보령머드축제

보령 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로 성공한 "보령 머드화장품"과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지역 관광명소를 홍보하고자 1998년 7월에 처음으로 시작한 보령 머드축제는 축제기간 동안 대형머드탕, 머드썰매대회, 머드슬라이딩, 머드교도소, 인간마네킹, 캐릭터인형, 갯벌극기훈련체험, 갯벌스키대회, 갯벌 10km 단축 마라톤대회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머드 체험행사를 제공한다. 지난해 226만 명(외국인 8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54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진 보령 머드축제는 올해 25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처음으로 중국에 머드축제가 수출돼 보령지

역과 보령 머드축제의 국제화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7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중국 라오닝(遼寧)성 다련(大連)시의 진시탄(金石灘) 해수욕장에서는 펼쳐지는 '2009 진시탄 한국보령 국제머드축제'가 열린다. 보령의 머드축제가 해외로 수출되기는 처음인데, 행사에 필요한 머드 20t은 보령에서 준비해 선박 편으로 진시탄 해수욕장까지 운반한다. 보령 머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웰빙 축제로 유명한 함양 산삼축제

또 다른 대표적 여름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축제로 함양 산삼 축제를 들 수 있다(2009. 7. 25 ~ 29). 지리산과 덕유산이 자리하여 백두대간을 이루고 1,000m 이상이 되는 고산이 15개가 넘는 전형적인 산악 지형인 함양군은 과거의 산간오지의 대명사에서 원시적인 산간자원을 이용하여 건강 웰빙 지역의 대명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함양 산삼축제는 "세계최고의 건강, 웰빙축제"라는 슬로건으로 게르마늄 토양에서 자란 함양 산삼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개최된 지난해 축제에는 5일간 약 65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산삼과 약초 판매로 약 25억 원, 농특산물 판매로 1억 원의 매출성과를 올려 국내 최고의 산업축제로 발돋움하였다. 이 밖에 방문객의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로 약 125억 원의 지역경제 시너지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는 지역축제

지역축제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다준다. 우선 지역축제는 축제를 통해 그 지역을 알리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축제를 통해 그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지역 문화 발전효과를 기대하며 지역 주민의 단결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축제의 동기부여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지역축제 방문객은 다양한 항목에서 지출을 하게 되며 이러한 방문객 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축제 방문객들은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희비, 쇼핑비, 기타 비용 등에서 다양한 지출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방문객 지출은 지역의 전 산업에 직,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인데, 축제를 통해 직, 간접적인 고용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축제는 고용기회의 확대 이외에도 세수의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지역축제가 대표적인 여름 휴가활동으로 자리를 잡아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령 머드축제와 함양 산산축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지역이 가진 차별화된 제반 환경에 기반한 축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Positioning). 오늘날의 여름휴가 패턴은 가족여행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가 단순한 여가, 오락의 기능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형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 축제 참가자들의 기본적 욕구 충족은 물론,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욕구까지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축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충분히 수용가능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제공할수 있는 숙박시설, 안내 및 편의 시설, 교통 등의 관광 인프라의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미지가 축제이미지 형성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주최하는 주민들의 서비스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 문화 관광 활동 증진과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지역축제는 여름 휴가객들로 하여금 즐거운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있다. 올 여름 문화와 자연이교감하는 여름 축제가 지역경제에 한줄기 밝은 빛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영민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가는 캠프 만들기

특별한 경험, 나의 첫 캠프

나의 첫 번째 캠프는 국민학교 5학년 때였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나를 그 첫 캠프에 보내시기 전에 무척이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무작정 캠프에 보내자니 가서 잘 적응도 못하고 울며 집에 간다고 때를 쓰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집안에서만 뉘굴뉘굴 지내게 두기에는 앞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야 할 날이 많은 아이에게 그다지 교육적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셨을 것이니 말이다. 결국 장애인 전문 캠프라는 점과 또 아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는 것으로 캠프에 보내 주시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두 분이 한때나마 교편을 잡으셨던 경험 속에서 아이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셨을 것이라 추론해본다. 어쨌든 그렇게 내 생의 첫 번째 캠프가 시작되었다.

한국 소아마비협회 산하의 '정립회관' 이란 곳에서 열린 캠프는, 전국에 있는 지체장애 청소년들이 모여서 3박4일간 친교를 나누고 평소 학교생활에서는 경험해보기 힘든 체육활동을 위주로 하여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캠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물론이고, 70년대라는 당시에 비추어볼 때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 사격, 양궁, 소프트볼, 게이트볼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잔뜩 마련되어 있었기에 나오서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어느 캠프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게 짜여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느새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버리는, 초보자에게는 정말 재미있고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자'

그 캠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자'는 것이었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들의 도움으로 지내는 일이 많았던 참가자들이었기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가장 당연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식판을 나르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는 애써 외면을 하셨고, 조금 덜 불편한 친구가 조금 더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집합시간이



나 취침점호 같은 때 시간이 되었음에도 아직 채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조장이 기본적으로 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조원 전체가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캠프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회성을 갖게 하고, 조원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당연한 것들이었다.

분주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취침점호에서까지 말썽을 부려 벌을 받은 후에 잠자리에 들었던 첫 번째 날 밤, 낯선 환경으로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옆자리 친구의 부스럭대는 소리에 잠이 깨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뭘 하나?’고 물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자기는 수술을 받고 보조기를 차고 걷는 연습을 시작하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지금부터 씻고 준비를 해서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집합시간까지 운동장에 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자기가 늦게 되면 또 조장이나 조원들이 모두 벌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것은 싫으니까 조금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어차피 깨어버린 잠이었기에, 그 친구와 함께 세수를 하고 옷과 보조기를 차려입고 기상 음악이 흘러나오자마자 운동장으로 출발을 했었다. 불과 100여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 친구는 땀을 뻘뻘 흘리고 몇 번을 쉬면서야 겨우겨우 집합 시간에 맞추어 운동장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그날 아침 체조 시간에 한 사람도 늦지 않고 모두 나와 있는 조는 우리 조뿐이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친구의 모두에 대한 배려 덕분이었다.

일상탈출 속에서 자신만의 경험 만들기

사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방학에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나 역시 4남매의 하나이지만, 우리 집에서 이런 식의 캠프를 다녀본 것은 나뿐이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는 또래의 친구들보다 무척이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임에 틀림없다. 요 근래에는 방학에 열리는 여러 가지의 캠프는 물론이거니와 학기 중에도 학년별로 또는 학교 전체가 체험학습을 위해 수련원으로 떠나는 것이 교과과의 하나가 되었기에 그다지 특별한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지만 말이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캠프라고 해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이 있기에 그것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맑은 눈망울을 생각해본다면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 요사이 영어캠프가 유행인 것 같다. 국내의 영어마을들은 물론 해외로 영어캠프를 떠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단기간의 합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는 면에서는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이기에 물론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캠프라고 불러도 좋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어느새 캠프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듯한 느낌이다. 원래의 의미에서 캠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르치고 배우러 가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매일의 학교생활과 일상에서는 느껴보기 어려웠던 것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그 일상탈출 속에서 개개인의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캠프의 진정한 의미는 아닐까 싶은 생각인 것이다. 때문에 캠프에서는 그것이 당장 어떤 이득이 되거나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에 점진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뿌려놓은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얼마 전 프랑스에서 자국의 경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전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정체 또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분야에서 만큼은 미미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성장곡선이 그려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흥미롭게 여긴 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본 결과, 이는 30여 년 전에 시작했던 자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향이 현재에 와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한다.

미래를 보고 어려서 뿌려놓은 씨앗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캠프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들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미래를 찾아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라나서 한 사람의 몫을 하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부지불식간에 사고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보람된 일일 것인가? 캠프의 원리인 협동심, 공동체감, 사회성 함양은, 사회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혼자만의 독단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배경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캠프의 프로그램은 실용적인 교육보다는 뭔가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문화나 예술적인 부분 혹은 공동체 체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와 꿈의 이야기를 그릴 수 있는 장이 되길 기획이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캠프를 만드는 것 역시 하나의 기획임에 틀림없기에 이 같은 입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캠프라는 것은 기획자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한 청소년들 개개인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 그 이야기를 평생의 교훈으로써 기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는 측면을 생각해본다면, 캠프의 기획이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주제와 원고지를 제공해주는 것에 다름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캠프를 만들어 간다면, 기획자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간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의도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임에 틀림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어떤 주제가 되었던 올해의 기획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내년에도 그 틀을 통째로 바꾸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획이란 면에서는 그릴 수 있는 것이지만, 교육이란 기획과는 달리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쌓인 것이 어느 순간에 활짝 꽃을 피워내는 일일 테니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회성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캠프는 사회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고루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30년 전, 처음으로 캠프에 참가하여 가슴 벅찼던 아이가 청소년지도사로서 캠프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아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캠프의 기획자가 되었다. 어려서 보았던 홀

륭한 삶의 모범은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인지 모른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어딘가에서 열리는 캠프에 참가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눈망울 맑게 반짝이며 자신의 미래와 꿈의 이야기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캠프들이 많이 준비되기를 바란다.

〈캠프 기획을 위한 원론적인 조건〉

- 개개인이 하나씩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주제를 선택하자.
- 캠프는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느끼러 가는 것임을 잊지 말자.
- 프로그램은 가급적 다양하게 준비해서 보다 많은 경험이 가능하게 하자.
- 기존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자. 좋은 프로그램은 연한을 가지지 않는다.
- 시간표는 가급적 타이트하게 구성하자. 아이들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짧다.
- 어떠한 사고도 없어야 한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위험성이 크다면 과감히 제외시키자.
- 무엇보다도, 캠프는 재미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자.

여상범 평창문화원 사물놀이강사

여상범은 생후 11개월에 소아마비를 앓아 양하지마비가 되었지만 어려서나 지금이나 별로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는 개성이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다. 경기도등학교,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시절에 문과대학 풍물패를 창단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11-마호 〈호남좌도필봉마을풍물굿〉'의 예능보유자였던 故 양순용에 사사하였다. 1994년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김덕수패 사물놀이)에 입사하였고 국내 최초의 장애인사물놀이패 '사물천동'을 창단하여 리더로 활약하였다. 문화관광부 청소년지도사(1급)로 기평수련원, 도고유스호스텔 등에서 직접 청소년지도자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김자꽃 스튜디오 국악강사, 평창문화원 사물놀이강사, 평창아라리 지도강사 등을 맡아 일하였다. 현재는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의 연구·교육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새롭고 재미있고 국제적인 캠프를 꾸며볼 생각으로 매일 매일을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여상범 평창문화원 사물놀이강사

특집 | 달려라 여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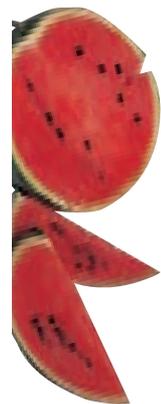
우리 선조들의 여름나기

농촌의 유두풍속

태음력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여름 절기는 음력 5월 6월이 중심이 된다. 양력으로는 7월 8월이 그 중심이다. 예나 지금이나 시절은 같지만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져 있다. 교통의 발달이나 학교의 방향, 회사의 휴가, 주(週) 단위의 생활 그리고 한 달의 봉급 문화 등이 현대의 바캉스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무더위를 이기는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모습들을 살펴보자.

〈농가월령가〉를 보면 ‘6월이라 계하되니 소서 대서 절기로다.’ 라고 하였다. 6월에는 농촌에서 퇴비를 장만하고 논두렁깎기 등을 한다. 하지 무렵에 모내기가 끝났으니 이때 또한 김매기를 하게 된다. 김매기는 대체로 세 번을 하는데 모내기 20일후에 초벌매기, 또다시 10일 후에 두벌매기, 또 10일 지나면 세벌매기를 끝으로 김매기를 끝낸다. 그러나 현재에는 제초제를 사용하여 김매기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리고 팥, 콩, 조들도 하지 무렵에 심고 세벌 김을 매게 된다. 6월이 되면 오이, 호박, 참외, 수박들을 따먹게 되는데 이를 유두친신이라 한다. 하지가 되면 감자를 친신하기도 한다. 6월 15일은 우리나라 풍속에 유두일이라 하였다. 고려 때 학자 김극기의 문집 《동악집 東岳集》에 보면 경주의 유습이라 하였는데, 유두의 풍습은 신라 때부터 있어온 것이라 하겠다. 유두는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의 하나다. 고려가요 〈동동〉에는

유월 보로매 아아별해 닻론 빗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니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날은 유두날 동쪽으로 흐르는 시냇가에 서 머리를 감고 빗으로 머리를 다듬고 버린 빗 같다고 기구한 자신의 운명을 노래했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는 바, 유두는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의 약칭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여름 절기의 정화의례로 깨끗함과 건강함을 주술적 의례행위인 것이다. 또 이날은 유두천신(流頭薦新)에 습속이 있었다. 유두에는 참외, 수박 과일 등이 새로 나기 시작 하며, 여름 수확 곡물인 밀과 보리가 있다. 따라서 유두에 시절 음식으로 조상에게 먼저 제사한 후 이를 먹게 되니 이것이 유두천신인 것이다. 특히,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여름 수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농가월령가>의 6월령을 보자.

삼복은 속절이오 뉴두는 가일이라
 원두밭에 춤외따고 밀가라 국수썩야
 가묘의 천신하고 흔때음식 즐겨보세
 부너는 허피마라 밀기를 흔데모하
 누룩을 띄여라 뉴두국을 헤는 나라

농촌의 자살한 유두풍속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夏至)는 후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立秋)후 첫 경일을 말복이라 하고, 이 셋을 일러 삼복이라 했다. 따라서 복은 10일에 한 번씩 오지만, 말복은 입추 때문에 20일 만에 오는 경우가 많다. 이 삼복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도 하다.

허한 기운을 보하는 개장국

《동국세시기》에 개장국 이야기가 있다.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개장이라 한다.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또 개국에 고춧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서 시절음식으로 먹는다. 그러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도 이것을 많이 판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 《사기 史記》에도 ‘진덕공(秦德公) 2년에 처음 삼복 제사를 지내는데 성안 4대문에서 개를 잡아 충재(蟲災)를 막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개 잡는 일이 곧 복날의 옛 행사요, 지금 풍속에도 개장이 삼복 중의 가장 좋은 음식이 된 것이다. 붉은

팥으로 죽을 쑤어 초, 중, 말복에 모두 먹는다. 개장국의 붉은 색은 옛날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다. <농가월령> ‘육월이라’를 보자

우리농군 모디어서 복다림ㅎ 여보세
 금리복중 ㅎ난때에 속을긋게 ㅎ외리다
 오장이 허쇼ㅎ면 더위들가 염어로다
 ㅎ즈리 이곡회도 극역진역 ㅎ여썬니
 중복말복 오난복은 ㅎ수가 전해었다

힘든 여름 김매기를 하느라 몸속에 축적된 영양소가 소진된 시기가 허한 기운을 보하고자 먹었던 음식이 바로 개장국과 더불어 삼계탕, 영계탕, 육개장과 같은 탕문화의 출발이기도 하겠다. 강원도 강릉지역에서는 ‘약병아리’라 하여 작은 닭을 잡아 보신용으로 먹거나, 수박, 참외 등을 복중에 먹기도 한다. 이를 ‘복다림’이라 한다. 현재에는 동네의 치킨집에서 튀김 닭이나 양념 닭을 배달하여 먹기도 하지만 복날의 새로운 풍습이다. 복중에 천둥이 많이 치면 머루와 다래 같은 산과일이 흉년 들고 천둥이 치지 않으면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또한 복날에 보신탕 대신 즐겨 했던 음식이 민어 매운탕이다. 국물을 넉넉히 잡아 애호박을 넣고 끓이다가 민어를 다시 넣고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풀어 파와 마늘, 풋고추, 썬갓을 넣어 끓여 먹는 민어 매운탕이 여름철의 건강식으로도 개운한 것이리라. 이와 함께 강가나 냇가를 찾아 천렵(川獵)을 하여 어족을 만들어 먹는 것도 예부터 즐겨하던 더위를 이기고자 했던 우리선조들의 여름나기의 모습이었다.

선비의 탁족과 농민들의 질상

그리고 무더운 삼복더위를 잊기 위해 맑고 좋은 계곡이나 시내를 찾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濯足)은 선조들의 여유롭고 아름다움이 있는 여름나기의 모습이다. 이를 탁족회라고도 하였다.

마을의 벼들과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함께 했을 시 한 수와, 노래가락 한 자락, 탁배기 한 사발의 여유는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의 하나였을 것이다. 《동국세시기》에는 서울의 탁족놀이를 하는 곳으로 ‘천연정(天然亭, 현재 서대문 밖)의 연꽃, 삼청동, 탕춘대(蕩春臺, 세검정 근처)와 정릉의 수석(水石)에 산보객이 많이 모인다. 또 남산과 북한산 계곡에서 발 씻는



탁족(濯足) 놀이를 한다.’ 고 기록하고 있다. 농부들의 피서법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이기도 했다. 초벌매기, 두벌매기, 세벌매기 논 김매기가 끝나면 음력 6~7월이 되는 데 대개 삼복더위가 이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때 ‘호미씻기’, ‘질먹기’ 라는 전통의 민속놀이를 하였는데 이것이 농민들의 더위를 쫓았던 풍속이요 방법이였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질먹기는 힘든 김매기 농사일을 끝내고 좋은 음식으로 잘 차린 큰상을 받아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노는 것이다. 이때 농군들은 장가갈 때 큰 상을 받는 것처럼 진수성찬을 받았다. 이 상을 ‘질상’ 이라 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머슴들이 질상을 차려 주는 것을 보고서 다음해 그 집에 머슴 일을 하러 간다는 말도 있었다. 질먹기는 질을 짜서 운영하는 마을의 영좌를 중심으로 마을 질꾼들이 연령순으로 차례로 상을 받는다. 상을 받아서 먹기 시작하면 모내기과 김매기의 품앗이 계산과 품값을 정리한다. 그리고 나면 동네의 남녀노소가 모두 어울려 차려온 음식으로 작은 잔치를 열며 서로 격려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여름 더위를 잊고자 했던 소박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풍속이였다. 그리고 바다가 인접한 마을에서는 다음날 음식을 준비하여 가까운 바닷가 해변을 찾아 모래찜질이나 해수욕을 하며 김매기에 지친 피로를 풀며 더위를 이겨 냈다.

강릉의 사천진리 하평마을에서는 질먹기와 함께 오후에 배를 빌려 바다에 나아가 뱃놀이도 즐기는 피서법도 함께 하기도 했다. 8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기계화 농법으로 그 자취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러한 흔적은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 그것이 바로 강원도영동농악에서 볼 수 있는 ‘질먹기농악’이다.

근래에는 바캉스 하면 멀리 해외의 야자수가 있는 해변이나 수영장을 연상하고, 국내에서도 어디론가 멀리 가는 것을 바캉스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더위는 그저 참을 만한 것이 아닐까? 피서의 장소와 방법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새겨서 올 삼복에는 선조들의 더위 이겨내는 방법을 따라 소박하게 여름나기를 해 볼 일이다.



김경남 한중대학교
전통문화학부 교수

도심의 수상한 놀이터에서 휴가 즐기기



1

아침은 마냥 한적하다. 사람이 모이기 전 이곳은 새와 바람, 금붕어의 장소이다. 공간의 한 부분이 하늘과 닿아 있어 그들이 다녀가기에 더 당연한 것이리라. 아침에 이르게 일어나 하늘 한 바퀴 돌고 온 새 한 마리는 돌확에 앉아 목을 축이는가 싶더니 풍덩 빠져버린다.

익숙하게 몸을 담그기를 수차례. 가볍게 날아 나뭇가지에 앉아 몸을 툄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던 우리네 풍속과 다를 것이 무언가. 지나던 새마저 여름의 풍속을 즐기는 이 수상한 도심의 정원,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여름의 피서, 도시의 바캉스

유두날 동쪽으로 흐르던 물에 머리감던 우리 선조들의 풍속은 우리에게 여름 바다를 찾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쉬운 일은 아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카피는 시간에 쫓기는 도시인에게 광고일 뿐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시의 여름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 들떠다볼 일이다.

이곳은 커피 하나로 온갖 꿈을 꾸던 한 남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커피섬(coffe sum)'의 이동진 대표다. 우리나라 유일의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가배두립'과 바리스타 전문 양성기관 '커피MBA'의 대표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커피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지만 그것으로 꿈이 멈추지는 않았다. 소통. 그것이 원두를 권손 안에서 함께 머문 하나의 정의였다.

"저는 커피가 가진 소통의 힘을 믿어요. 커피는 60억 인구가 접하는 하나의 코드입니다. 민족, 국가,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즐기잖아요. 소통이 뭐 별 거겠어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끓여놓고 대화하는 게 바로 소통이죠."



2

그의 덧없기만 해 보였던 몽상은 곧 현실이 되었다. 바로 커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도심의 섬, 커피섬의 시작이다.

어둠 속에서 소통하기

이곳의 가장 독특한 체험은 바로 '커피투어'이다. 안내를 받아 케인(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얇은 지팡이)을 들고 하얀 문을 밀고 들어가면 그야말로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다. 눈을 떠도 감아도 암흑 뿐이라 쉽사리 지각되지 않는 이 공간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 같아 보인다.

그러나 곧 들려오는 목소리. 이름을 묻고, 소개를 한다. 이곳의 커피 탐험대장이다. 그의 목소리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세 소리 때로 벌의 날갯짓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다. 발끝에 신경을 모아 폭신해졌다가 단단해진 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각종 씨앗을 손으로 쥐어본다. 생두에서는 고추씨 말리는 냄새가 난다. 보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지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외에도 지각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 차가운 공기에 오소소 들은 살갗의 감촉이, 세세한 소리도 크게 들리는 귀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신해주었다. 그곳은 암흑이다. 흔히 하듯 그곳에서의 추억은 영상으로 남지 않는다. 다만 목소리, 발끝의 감촉, 원두의 향으로 기억된다. 시각장애를 가진 탐험대장과 아주 꼭 같지는 않더라도 같은 곳에 같은 모양으로 있었던 셈이다.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길

이렇게 커피섬에서 즐기는 커피는 조금 색다른 맛이다. 숙련된 바리스타들의 신선한 커피를 입으로 즐기는 것이 첫 번째. 어둠 속에서 마셔보는 다크카페, 생두가 원두로 되는 로스팅 과정을 보는 커피컴터, 복합 아트 갤러리 두림(豆林), 과자공방 공간이 개방

된 하늘정원 등 갖가지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이 층을 전부 쓰게 되었습니다. 애초의 계획보다 커진 공간을 나누다 보니 하나하나 공간을 채우는 재미가 있었죠. 그렇게 여러 공간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8개월간의 시간동안 이루어진 것이었죠. 커피투어나 다크카페는 처음 시각장애인들의 작품을 걸었던 갤러리 자리에 그 분들이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나온 거예요. 고용의 기회도 드리고 일반 분들에게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의 경험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값비싼 커피를 마시며 우아함을 좇는 차 마시기 보다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또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꿈꾸는 그다.

커피를 즐겼던 고종이 마신 커피는 어땠을까. 19세기 초 세계열강의 탐바구니에서 아내를 잃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했던 조선말의 왕이 잠시 숨을 돌리며 커피 한 모금을 넘길 때의 그 미감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 격세지감이다. 지금 이 도시에서는 고종이 즐긴 그 커피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더 풍부하게, 더 다양하게, 그렇게 손을 내민다. 또다른 소통을 꿈꾸며.

* 이곳의 상호인 커피섬은 Coffee와 Sum의 합성어로 Sum은 우리말 뜻 섬(island)의 의미와 영어로 합집합의 뜻을 지닌 Sum의 이중 의미를 담고 있다. 커피에 관련된 전시는 물론 커피 여행 체험, 커피를 직접 만들어보고, 커피나무를 키워보며 커피를 볶아도 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한 신개념 커피문화공간이다.



3



4



5

1. 커피섬 내부 전경
2. 하늘정원
3. 로스팅을 하는 커피공터
4. 커피나무 벤치
5. 이동진 대표

문화원 탐방

통섭의 문을 여는
노원의 문화알림이
노원문화원



최재천 선생이 통합과 융합,

통섭에 대한 구분을 들은 적이 있다.

통합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물리적인 단위들을 그냥 묶는 과정' 이고,

융합은 사전적 의미로

'하나 이상의 것이 녹아서 하나가 됨' 이며,

통섭은 '녹아 합쳐진 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탄생해야 한다' 는 의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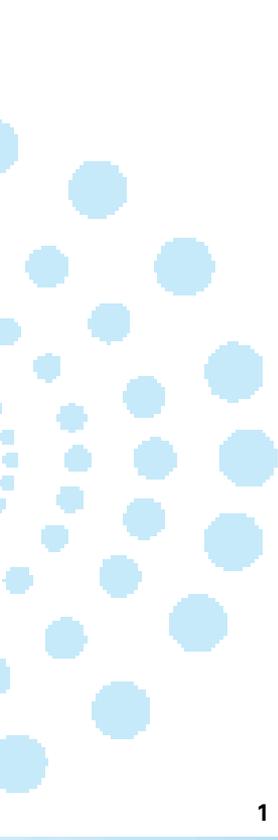
생물학적 합침이라고.

그의 통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잊었다가

오늘, 노원문화원에서 그 단어를 다시 떠올려본다.

노원의 통섭을 주도하는 문화전도사 노원문화원.

그 속내로 들어 가보자.



1



문화원 늦둥이의 이미 시작된 걸음마

노원문화원은 12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원이다. 햇수로 치면 전국의 지방문화원의 늦둥이 막내쯤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문화 관련기관이 차고 넘치는 이 도시에서 한 귀둥이를 담당하여 12년의 세월을 축적하는 데에는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나름의 질곡도 있었고, 경사도 있었다. 그런 시간이 하나씩 포개져 2009년 7월의 노원문화원이 되었다. 막 열두 살의 나이로 접어든 노원문화원은 얼마 전 경사가 있었다. 바로 문화원사 셋 방살이를 마치고 단독원사를 갖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28일에 개원식을 갖고 노원의 힘찬 걸음마를 땀다. 노원구 나래길 14(공릉동 710)에 지어진 새 원사는 대지 435.31㎡, 연면적 1,686.28㎡(510.9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총 5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열린 민원실과 다목적 공연장이 있고 2, 3층은 작은 도서관, 전산교육장, 강의실 3곳, 원장실 사무국이 있으며, 4층에는 요리전용의 강의실 1곳과 하늘정원이 있다.

문화의 벽을 넘어서 공간

멀리서 봐도 아 저게 노원문화원인가, 하고 알 수 있는 건 건물 외형의 디자인 요소들이 풍부해서다. 회색 일색의 보통 건물하고는 달리 알록달록한 색도 그렇지만 한쪽 벽면에 설치된 조형물 때문에 더욱 그렇다. 중앙대 한미에 교수가 만든 '벽을 넘어서' 라는 작품인데 세 사람이 열심히 문화원 벽을 등반하는 모습이 위트 있게 꾸며져 있다. 김진학 사무국장은 문화원 곳곳에 문화의 향기가 피어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주민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외형을 택했다고. 창문 하나 계단 하나에도 세세히 신경 쓴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복도마다 갤러리로 만들려고 벽면마다 작품을 설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원사의 벽을 오르는 세 사람의 몸짓에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씩 미소 짓게 한다.

“노원문화원 근처에는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다 보니 문화를 향유하



“문화원의 노력으로 첫째는
우리 노원이 문화로 물들고,
나아가 서울로,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가기를 늘 희망합니다.



2

는 것 자체가 버거울 수밖에 없지요. 장애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문화소의계층을 위해 공연도 갖고 포럼도 열고 민요 강의도 합니다.” 태용철 노원문화원장은 노원의 식구들이라면 한 사람도 문화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더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이 지역에서 문화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느냐고 묻자 태용철 노원문화원장은 아주 태연하게 그렇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덧붙여 ‘지금까지는’ 이라고. “문화원이 이 지역의 문화로 중추적인 역할을 그동안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막 노원의 문화부흥기를 꿈꾸고 있지요. 어려운 시절에는 문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3

그렇지만 이 시대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가 없으면 삶이 없는 것이나 같죠. 문화경쟁력을 높여야 선진국이 됩니다.” 단독 원사 건립과 함께 노원문화원은 꿈꾸는 것이 많다. 심지어 원사 건립 이전 30개 강좌에 불과하던 것이 148개로 늘었으니 그 내용을 짐작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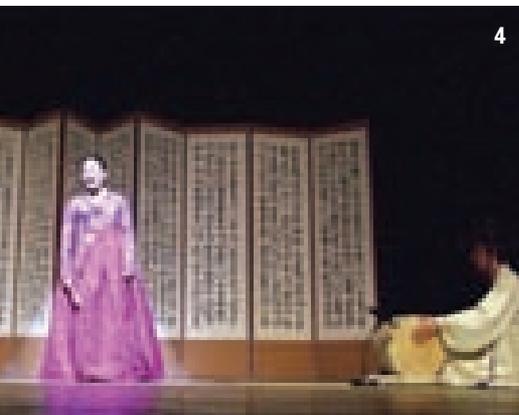
이렇게 벌린 일을 보자면 ‘앞으로는’ 노원의 문화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문화욕심쟁이 노원문화원

이제부터, 라고 다짐을 밝히는 노원문화원이지만 사실 1년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노원문화원의 끝없는 문화욕심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계획안만으로도 충분히 바쁜 일정이기 때문.

분기별로 진행되는 노원문화포럼을 비롯하여, 노원구민 음악축제, 노원구민 문예사업, 국악예술단 운영, 노원청소년 문화예술제 등 한 해 별리는 사업도 웬만한 문화단체 못지않다.

더욱이 문화원만의 차별성을 두고자 경기민요, 한국무용, 사물놀이, 사진반, 문학 등을 특별히 더욱 지원·육성할 계획이라고. 더욱이 7월에 내몽골문화자 친구 문화청의 초청으로 국제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이라고 하니 올 한 해가 더욱 바빠질 듯하다.



4



5

1. 노원문화원 식구들 (좌부터 사업팀장 박태중, 직원 김효저, 주임백수연, 문화원장 태용철, 사무국장 김진학, 총무과장 이의경, 직원 김인순, 희망근로 강혜경, 직원 최정섭)
2. 사군자반.
3. 플로리스트반
4. 국악예술단 정기공연, 안숙선
5. 태용철 노원문화원장
6. 예술제 정기공연

문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번지고 번져서 서로 물들게 하는 것.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문화지요.”

“문화원의 노력으로 첫째는 우리 노원이 문화로 물들고, 나아가 서울로,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가기를 늘 희망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번지고 번져서 서로 물들게 하는 것.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문화지요.”

노원문화원은 어찌 보면 너무나 큰 욕심을 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소한 한 방울이 태 원장의 말대로 번지고 번지는 거라면, 그렇게 물들이고 물드는 것이라면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녹아 합쳐진 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탄생케 하는 ‘통섭’을 꿈꾸는 노원. 노원의 꿈은 밤에도 낮에도 계속된다.



6





기획

인륜지 대사(人倫之大事) 혼인례(婚禮) ①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으면 혼인하여 부부가 되어야 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아들 딸을 낳아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와 민족이 번영하고 인류가 멸절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인륜지대사라고 한다. 그런데 일부 비인륜적인 외국에서는 性婚姻을 합법화하고 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으면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합법화 하였으니 비인륜적이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몹시 가난해서 비합리적으로 흉내 내던 것만 보아 와서 그것을 전통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제라도 이치에 맞는 혼인예식을 해야 할 것이다. 돈을 받고 예식장을 빌려주는 업자들이라면 당연히 합리적인 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맞는 것이 문화민족다운 혼인문화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혼인하는 부부들이라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가. 혼례(昏禮)와 혼인(婚姻)과 결혼(結婚)

1. 왜? 혼례(昏禮)인가

(1) 사계의 가례집람(沙溪家禮輯覽)에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하는 데에 참뜻이 있다.(婚姻則男女合體之義)”고 했다. 그것은 양(陽·男·해별)과 음(陰·女·그늘)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 조화(造化)를 일으켜 창조·자녀를 두는 데에 참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同性·男男·여여)이 만나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혼인이 아니라 동거(同居)이고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同居人)인 것이다.

(2) 양과 음이 만나는 것이니까 시간도 양인 해별이 나는 낮과 음인 그늘(해가 없는 밤)이 진 밤이 만나는 시간에 혼인예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은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다.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하는 일은 저녁에 하는 것인데 해뜨는 시간에 예식을 하고 저녁을 기다리기가 너무 길어 불안하다. 그래서 해가 지는 황혼무렵에 혼인예식을 하게 되었고, 황혼무렵에 올리는 예식이라 혼(昏)자를 써서 혼례(昏禮)라 한 것이다.

2. 혼인(婚姻)과 결혼(結婚)

(1) 아내(女)를 황혼 무렵(昏)에 만나는 것이 장가드는 것이라 장가든다는 글자를 女변에 昏을 써서 혼(婚)자를 장가들혼 이라 하고, 여자는 매과(媒婆·女)를 앞세워서(因해서) 남자를 만나 시집가는 것이라 시집간다는 글자는 女변에 因을 써서 인(姻)자를 시집갈인 이라 하였다.

그래서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을 혼인이라 하고 때문에 예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는 서약은 혼인서약(婚姻誓約)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과 모법인 민법에서는 한결 같이 혼인(婚姻)이라 하고 있다.

(2) 결혼(結婚)이라는 말은 옛날에도 썼다. 결혼의 혼(婚)은 사돈혼 자이다. 그러므로 결혼(結婚)은 사돈을 맺는다는 말이다. 결혼인(結婚姻)이라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맺는다'는 말이 되지만 결혼(結婚)을 '장가드는 것을 맺는다'고 하면 시집가는 것이 빠져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은 혼인(婚姻)이고 박씨와 김씨가 사돈을 맺는 것은 박씨네와 김씨네가 결혼(結婚)하는 것이다.

(3)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결혼(結婚)이라고 했다가 1994년에 동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결혼(結婚)을 혼인(婚姻)으로 고쳤던 것이 바로 법률용어를 통일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혼인이라고 말해야 법치국민다운 언어생활이 되는 것이다.

나. 혼인의 조건(條件)과 정신(精神)

1. 혼인의 조건

(1) 혼인은 반드시 이성간(異性間)의 결합이어야 한다. 혼인은 종족보존의 수단이다. 그것은 동성간(同性間)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2) 혼인은 적령기(適齡期)에 해야 한다. 혼인은 종족보존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비된 이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동선동본(同姓同本)은 안된다. 동성동본간에 부부가 되면

씨족위계(氏族位階)에 혼란이 오고 핏줄·종통(種統)의 문란이 온다. 남매·숙질·조손(男妹·叔姪·祖孫)간이 부부가 되고 또 사돈이 되기도 한다. 예식장에 갈 때는 오빠·아줌마가 예식장에서 나올 때는 여보·당신이 된다.

(4) 우생학적(優生學的) 문제를 살핀다. 우생학을 인종개량학이라고도 한다.

출생할 자녀의 우열성(優劣性)을 고려한다. 고약한 유전인자(遺傳因子), 불치의 포병자(抱病者)의 만남은 그런 출생확률(出生確率)이 높다.

(5) 근친의 상중이나 기타 슬픔에 젖어 있을 때는 혼인하지 않는다.

2. 혼인 정신

(1) 삼서정신(三誓精神)

혼인의 질치는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나 혼인의 정신은 영원히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혼인정신의 첫 번째가 삼서정신으로 세 번을 서약하는 것이다.

①서 부모례(誓父母禮) | 옛 가정의례의 초자례·초녀례(醮子禮·醮女禮)이다. 신랑은 혼인 날 아침에 조상에게 아뢰고 부모의 교훈을 받으며 부모에게 원만한 혼인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서약하고 신부댁을 향하여 출발한다. 신부는 신랑을 따라 나가기 직전에 한다.

②서 천지례(誓天地禮) | 혼인예식에서 첫 번째 술잔을 받아마시지 않고 제사지내는 췌주(祭酒)만 하는 췌주 불음(祭酒不飲)과 안주를 집어 빈 그릇에 놓는 거효(擧餼)이다. 절대자(絕對者)요, 초능력자인 하늘과 땅에 훌륭한 불변의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③서 배우례(誓配偶禮) | 혼인예식에서 술을 받아 반쯤 마시고 술잔을 교환하여 남은 술을 다 마시는 합환주(合歡酒)이다.

(2) 평등정신(平等精神)

사계의 가례집람(沙溪家禮輯覽)에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하여 부부가 되면 남편이 높으면 아내도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

내도 낮다(男女合體則 男尊則 女尊 男卑則 女卑.)”고 부부는 평등하다고 선언하였다. 맞는 말이다.

남녀가 몸을 합하기 전에는 연령의 차이, 신분의 차이, 능력의 차이 등으로 당연히 차등이 있겠지만 몸을 합해서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 쪽은 높고 한 쪽은 낮아지겠는가.

당연히 높은 낮은 부부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옛날의 부부는 남존여비(男尊女卑)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 옛 가례의 혼인례 절차

1. 혼인 육례란 무엇인가

(1) “6례를 갖추고 귀밑머리 함께 풀었다.” 는 6례를 “주례(周禮)의 혼인 육례(婚姻六禮)”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자가 “주례의 혼인 6례는 불합리하다”며 4례(四禮)로 바꾸었다.

①주례의 혼인 6례 |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6가지다.

②주자의 혼인 4례 |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4가지이다.

(2) 주자의 사상에 반대하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곤욕을 당하는 시대에 “4례를 갖추고 . . .”라고 말하지 않고 “6례를 갖추고 . . .”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때였다.

그런데도 6례라 한 것은 주례의 6례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통 혼인 6례였기에 그랬던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전통 혼인 6례(傳統 婚姻六禮)

혼담·상담(婚談·相談), 사주·납채(四柱·納采), 택일·납기(擇日·納期), 납폐·함들이(納幣·함들이), 예식·대례(禮式·大禮), 우귀·신부우례(于歸·新婦于禮)의 6가지이다.

2. 중국과 한국의 혼인예식의 큰 차이점

(1) 중국 주례 6례의 친영과 주자의 4례의 친영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와서 혼인 예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치러 몸을 합해 부부가 되었다.

(2) 우리나라의 전통 혼인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집

에서 예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치러 몸을 합해 부부가 된 다음에야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신랑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을 ‘우귀례(于歸禮)라 하였다.

(3) 이렇게 중국에서는 신랑의 집에서 부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부의 집에서 부부가 되어 혼인예식의 핵심인 몸을 합하는 장소가 다른 것이다.

라. 우리의 전통 혼인례 절차

1. 상담(相談), 청혼(請婚)과 허혼(許婚)

(1) 상담

중신이든, 친구소개든, 직장동료든 혼인을 전제로 사귀고 교류하는 것이 상담에 해당한다.

상대를 배우자로 결정하는 일은 엄격하고도 면밀한 검토와 비교선별을 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는 자기의 선별조건에 대하여 깊은 고려를 해야 한다. 영국의 세미르-제기 교수가 2005년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를 단층 촬영해 보니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체계의 활동이 감소된다.’ 그래서 연인들은 쉽게 비판기능을 잃는다. 혼인 후에 그 혼인을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젊은 본인은 삶의 체험이 없어서 사람을 선별할 능력이 미약하다. 그래서 배우자의 선정은 인생체험이 많은 부모의 변별력에 60%의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의 위치에서는 본인의 결정에 심대한 하자가 없으면 존중하는 것이 가정행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2) 청혼

이렇게 부모와 본인이 합의가 되면 남자 측에서 여자 측의 어른에게 청혼서(請婚書)를 보낸다. 청혼서에는 신랑감의 호적등본을 동봉하여 법률적으로 결점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여자 측에서 청혼을 거절할 때는 정중하게 남자 측의 청혼서를 반송하면 된다.

(3) 허혼

여자 측에서 남자 측의 어른에게 허혼서(許婚書)를 보낸다. 허혼서에는 신부감의 호적등본을 동봉한다.

(4) 불허

허혼서를 받은 남자 측에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 허혼서를 정중하게 여자 측에 반송하고, 허혼서를 반송받은 여자 측에서 남자 측의 청혼서를 정중하게 반송하면 없었던 일로 한다.

2. 납채(納采), 사주(四柱)와 정혼(定婚)

(1) 납채

여자 측에서 남자 측에 보낸 허혼서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남자측 어른이 여자 측 어른에게 "선생의 따님을 저의 며느리로 맞기로 하였습니다"고 알리는 납채절차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혼인을 정하는 정혼절차이다.

(2) 사주

① 납채는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신랑감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 4기둥을 적은 사주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하는 까닭은 생년·월·일·시 4기둥을 간지·육갑(干支·六甲)으로 2글자씩 쓰니까 모두 8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② 봉투의 서식은 너비 7cm x 길이 30cm 정도의 봉투 중앙에 [四柱 全州后人 李容九(신랑의 이름)라고 쓴다.

③ 사주 속종이는 너비 29cm x 길이 30cm 정도의 종이를 5칸으로 접는데 2·3·4째 칸은 봉투 너비로 하고 1·5째 칸은 4cm 정도로 하면 된다.

(3) 속종이의 서식

① 1째 칸은 비우고, 2째 칸에는 봉투와 같이 쓰고, 3째 칸에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순으로 육갑 2자씩 [甲子 乙丑 丙寅 丁卯(사실대로)라고 쓴다. 4째 칸에는 육갑으로 쓴 생년·월·일·시를 수자로 쓴다. [原 檀君紀元 ○○○○年 ○○月 ○○日 ○○時生]이라 쓴다. 5째 칸은 비운다.

② 속종이를 접어서 봉투에 넣고 그것을 청홍 겹보로 싸는데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이니까 양(陽)의 색깔인 홍색(紅色)이 밖으로 나오게 쓴다.

(4) 납채서(納采書)

① 남자 측 어른이 여자 측 어른에게 "납채 [四柱]를 보내니 잘 받으십시오"의 내용의 편지를 사주와 함께 보내는데 그것을 납채서라 한다.

② 납채서의 봉투의 크기는 사주 봉투와 같게 하고, 앞쪽에는 [上狀 金海 金敬培 선생님 좌하]라 쓰고, 뒤쪽에는 [全州后人 李吉純 재배]라고 쓴다.

③ 납채서의 속종이의 크기는 너비 29cm x 길이 43cm 정도의 종이를 7칸으로 접는데 2·3·4·5·6째 칸은 봉투 너비와 같은 너비로 접고, 1·7째 칸은 4cm 정도의 너비로 접는다.

(5) 납채 주고받기

① 납채가 남자 측을 떠날 때는 선조의 위패를 뒤희고 선조에게 아뢰는 다음에 여자 측으로 간다.

② 납채를 주고받는 장소는 여자의 집이나 여자쪽에서 준비한 장소에서 주고받는다. 여자쪽에서도 남자쪽과 같은 방법으로 납채를 받았음을 선조에게 아뢰는다.

(6) 정혼

납채는 혼인하기를 약속하는 것이라 옛날에는 정혼이라 했고 요사이에는 약혼이라 하며 참석자는 신랑감과 신부감, 그리고 양가의 부모와 형제자매, 즉 혼인 후에도 사돈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만으로 한다. 정혼하는 자리니까 약혼식을 한다면서 서로가 자기의 세(勢)를 과시(誇示)하는 일은 피한다.

(7) 금은보화 패물을 주고받는 것은 뒤로 미루고 금가락지 정도를 마련해서 남녀 본인이 하나씩 나누어 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납기(納期), 택일(擇日)과 예단(禮段)

(1) 납기

여자쪽에서 남자쪽에 혼인 날자를 정해서 보내는 일을 납기라 한다.

(2) 택일

혼인은 남녀가 몸을 합하는 것이고 혼인준비는 여자쪽이 더 복잡함으로 여자쪽에서 날자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봉투의 서식

택일을 적어 보내는 택일의 봉투 크기는 사주 봉투의 크기와 같이 한다. 봉투의 앞쪽에 [涓(연)吉(길)壻(서)奎(진)州(주)后(후)人(인)李(이)容(용)九(구)婦(부)金(김)海(해)后(후)人(인)金(김)玉(옥)順(순)]이라 쓰는데 연길(涓吉)은 좋은 날이란 뜻이고, 그 아래에 나란히 오른쪽에 쓴 서(壻, 사위)는 신랑이고, 왼쪽에 쓴 부(婦, 며느리)는 신부인바 상대쪽의 칭호로 써서 곱양의 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4) 속종이의 서식

① 택일의 속종이 크기와 접기는 사주 속종이와 같이 한다. 1째 칸은 비우고, 2째 칸에는 아래쪽에 서와 부를 나란히 쓰고, 3째 칸에는 [奠雁(전안) 甲子 乙丑 丙寅 丁未, 기러기를 올리는(전안) 시간]은 갑자년 을축월 병인일 정미시라고 간지·육갑으로 쓰고, 4째 칸에는 앞에 간지로 쓴 연·월·일·시를 숫자로 [際(際, 갈다) 단군기원 0000년 00월 00일 오후 0시]라고 쓰고 이어서 다음 줄에 [만일 납폐를 하려거든 그 전에 신부의 집에서 하십시오(若有納幣則 先行于婦之家)]라고 함을 드릴 곳을 쓰는데 날짜는 신랑 측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지 않는다. 5째 칸은 비운다.

② 속종이를 봉투에 넣고, 청홍 겹보로(신부의 집에서 보내는 것이니까) 음(陰)의 색깔인 청색이 밖으로 나오게 쓴다.

(5) 납기서(納期書)

① 납채 때와 같이 “택일을 보내니 살펴 받으십시오”라고 신부 쪽 어른이 신랑쪽 어른에게 보내는 납기서를 쓴다.

② 납기서의 봉투 크기는 납채서 봉투와 같이 하고 봉투의 앞쪽에 [上狀 全州 李吉純 선생님 좌하라 쓰고 뒤쪽의 아래에 [金海后人 金敬培 재배]라고 쓴다.

③ 납기서 속종이의 크기와 접기는 납채서 속종이와 같이 한다.

(6) 택일 주고받기

① 택일이 신부의 집을 떠날 때는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선조에게 아뢰고 다음에 떠난다.

② 택일을 주고받는 장소는 신랑의 집이나 신랑쪽에서 준비한

장소에서 한다. 신랑쪽에서도 선조에게 택일을 받았음을 신부 쪽과 같은 방법으로 아뢰는다.

③ 택일을 주고받는 장소에 참석하는 사람도 사주를 주고받을 때와 같은 범위로 한다.

(7) 예단(禮緞)

예단은 예물이다. 그러므로 신랑·신부 어느 쪽이든 상대 쪽에 “예단 무엇을 얼마나 해 오라.”고 말하거나 글로 적어 주는 것은 큰 실례이다. 예단은 남에게 자랑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돈에 대한 성의이다. 성의를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은 실례이다.

비단 예단 뿐이 아니고 신부나 신랑에게 주는 패물이나 금·품도 문건(聞見)·교양이 있는 집에서는 미리 “무엇을 해 준다.” “크기를 재라.”는 등의 말을 해서 상대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주고 싶으면 내 사람이 된 다음에 상대편에게 소문내지 않고 얼마든지 주면 되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장흥문화원

제11회 장흥문예백일장 및 제7회 그림그리기대회

지난 6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에 장흥문예회관 대.소공연장 및 부대시설에서 제11회 장흥문예백일장 및 제7회 그림그리기대회가 열렸다.



문화소외지역인 농촌지역 청소년(어린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발표 기회를 넓혀주고, 창작의욕을 진작시켜 문림 고을의 전통을 다지는 한편,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 육성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을 위해 열린 행사였다.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학교장 추천)로 나누어 운문, 산문으로 나뉜 백일장(주제 : 탐진강 사랑)과 정물화, 풍경화(수채화), 표현하기 나뉜 그림그리기로 진행되었으며 300명 정도가 참여해 행사를 빛냈다. 시상은 오는 9월 22일(화) '푸른꿈 정다운 노래한마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상주문화원

출발! 상주역사 퀴즈대회 열려

상주문화원(원장 신현수)에서는 2009년 5월 23일 상주시 만산동에 소재한 상산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발! 상주역사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본 대회는 앞으로 상주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상주의 역사, 문화재 등 우리고장에 대한 것을 퀴즈문제로 출제하여 대회를 통하여 배우게 함으로써 애향정신 함양과 상주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개최했다. 초,중학생 400여명이 참가하여 예선과 본선을 거친 결과 영예의 1등은 초등부에서는 상산초등학교 5학년 손재원 학생이 중등부에서는 남산중학교 1학년 김형수 학생이 차지했다.

초등부에서 가장 많은 본선 입상자를 배출한 곳은 상산초등



학교이고 중등부에서는 상주중학교와 남산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함안문화원

2009년 찾아가는 문화탐방

조훈래(趙煥來) 원장과 회원 167명은 지난 6월 19일 '찾아가는 문화탐방'을 '남도의 문화유산답사 1번지'라 하기도 하는 전남 영암군 월출산 도갑사, 왕인박사 유적지, 도기 문화센터로 문화 탐방을 갔다. 함안문화원의 방문 소식을 듣고 신태균(申泰均) 영암문화원장은 월출산 입구에 있는 식당 청풍원까지 사무국장과 문화해설자 4명을 대동하고 직접 나와 환영의 말과 영암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었고, 영암 관광 안내도인 손수건을 함안문화 회원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 월출산은 서해에 인접해 달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주변의 산들이 대부분 흙으로 된 토산들이나 반해 월출산은 바위산으로 깎아지른 절벽과 서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일몰의



절경으로 호남의 소금강이라 일컫기도 한다. 연로한 회원들이 많고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 산 정상까지는 가지 못하고 신라말 도선국사가 지었다고 하는 월출산 기슭에 있는 도갑사를 탐방했다. 도갑사 해탈문은 청평사 회전문(보물 제164호)과 비교되는 중요한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문화원 회원들이 탐방했을 때 절 내부 보수 공사가 한 참 진행 중에 있었다. 도갑사 대웅전 앞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마치고 일본 비조 문화(飛鳥文化)를 탄생케 한 왕인박사 유적지로 자리를 옮겼다. 왕인박사는 일본 문화를 깨우치게 한 장본인이며 박사의 후손들은 일본에서 대대로 학문에 관한 일을 맡아 문화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한다. 영암군에서는 매년 음력 3월 3일 추모제를 거행하며 볼만 한 것이 많다고 문화재 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 탐방의 마지막 코스인 한국도기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개발·전승을 목적으로 1999년 10월 개관한 구림마을의 영암도기 박물관을 방문했다.

함안문화원에서 찾아가는 문화탐방을 매년 5월에 실시해 오다, 올해는 새청사로 이사와 개관관계로 늦추어지는 바람에 6월에 이루어졌다.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 미2사단

신입 장병을 위한 전통문화 공연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22일 의정부 경기도 2청사에서

미2사단 신입 장병을 위한 전통문화 공연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연에는 포천문화원 민요반, 우리춤 체조반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태평가, 한량무 등 우리고유의 문화공연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미군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춤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 한국의 문화에 멋들어진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멀리 이국에서 자유평화를 위해 우리나라까지 와서 애쓰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나라의 멋진 문화를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문화원에서는 앞으로도 포천문화원 문화예술 봉사단을 더욱 활성화 시켜 누구나 한국의 문화를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가자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공연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시상식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6월 19일 포천문화원 2층 강의실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을 문화원 임·직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올해 년 초부터 몰려오는 경제위기, 사회불안 등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을 좀 더 밝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분위기를 일신시키고자 시작 된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정겨운 편지를 쓰는 사

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 하겠으며,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포천문화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장원은 안산시 정순옥님의 '결에 있어 주어 고마운 당신에게'가 차지했으며, 차상 박찬미님, 차하 박승연님, 특선은 부산에 사시는 최영님, 남현숙님, 입선에 이송수님, 심수현님, 박명옥님 등 총 8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장원, 차상, 차하 수상자에게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서 협찬한 농산물상품권과 기념품이 증정되었고, 특선, 입선 수상자에게는 포천도서관에서 협찬한 문화상품권과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포천문화원은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매분기별로 연중공모하고 있으며, 장원작은 “포천문화사랑” 책자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포천문화원(☎031-5325015, 5055, FAX 536-1020, 홈페이지: <http://www.pcmh.or.kr>, e-mail: kgpc1986@yahoo.co.kr)으로 문의 하면 된다.

■ ‘추억의 실버퓨전 예술단’ 개강식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8일 수강생 및 문화원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에 대비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실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포천문화원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2009 어르신 문화학교 ‘추억의 실버 퓨전 예술

단’의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 문화학교에 참여해주신 수강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취미 활동을 통한 생활의 활력을 찾는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인생을 즐기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삼육대학교 음악과 교수를 역임하신 유태현 강사에게 위촉장을 전달드렸으며, 개강식 축하공연으로 전부경님의 색소폰, 임석환님의 아코디언, 이상열님의 대금 연주가 있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어르신 문화학교는 포천문화원에서 실버세대의 노후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악과 양악이 조화된 퓨전 음악을 선보일 계획이며, 전통악기와 현대악기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함께 공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차적 교육을 거쳐 포천문화원 실버 퓨전 예술단원으로 활동 및 추후 지역문화 축제에서 봉사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6월 1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씩 무료강의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관련 문의는 포천문화원(☎532-5015, 5055, FAX 536-1020, 홈페이지: <http://www.pcmh.or.kr>, e-mail: kgpc1986@yahoo.co.kr)으로 하면 된다.

■ ‘이주민 문화이해교육’ 다문화 합창단 시범공연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2009년 6월9일 의정부 출입국 관리소 주최로 포천베어스타운 타워콘도에서 실시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문화 가정캠프에서 포천문화원에서 이주민 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합창단 양성교육생 20여명이 참여하여 다문화 합창단 시범 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을 가진 다문화 합창단은 교육을 시작한지 채 2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비둘기집, 개똥벌레 등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를 율동과 함께 선보여 200여명의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포천문화원장, 의정부 출입국 관리소장,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와 캠프 행사전에 합창공연을 선보였으며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축사에서 “결혼 이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포천문화원이 더욱 노력할 것과 다문화 합창단의 노력과 성과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포천문화원에서는 앞으로도 다문화 합창단에 많은 이주민들을 참여토록 하여 한국의 문화를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가자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공연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청양문화원

청소년 역사체험순례



청양문화원 (원장 정재권)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지난 5월29일 ~ 6월 10일간에 거쳐 관내 초등학교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충남권 문화유적지 및 충의시설 (충의사, 서산 마애삼존불, 해미읍성, 간월도 간월암, 김좌진 장군 생가 및 사당, 한용운 선생 생가 및 기념관)을 탐방했다.

정선문화원

‘큰너울 품물회’ 대상



정선문화원(원장 유경은)는 지난 6월13일 횡성에서 열린 한국문화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하고, 횡성문화원이 주관하는 ‘제1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로써 2002년, 2004년, 2009년 총 3회 대상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2009 그림이 있는 음악회



2009년 6월 18일 정선문화원 문화쉼터에서 여름 맞이 그림 있는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제1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선문화원 동아리 ‘큰너울 풍물회’를 비롯한 총 여덟 팀의 동아리들이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으며, 미술공연, 인디언 음악 같은 볼거리와 함께 7080의 대표주자 가수 양하영(가슴앓이 외), 카운티, 고구려 밴드가 문화쉼터를 찾은 지역주민 500명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정선문화원 그림동아리 사람과 그림의 정기 전시회를 축하하는 의미와 사전 준비된 영상을 통하여 그림과 음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향토기자단 1차 답사

2009 향토사대중화사업 [영동에서 영서까지 장(場)길 따라 잡기에 따라, 정선문화원(원장 유경은) 향토기자단이 1차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1차 답사행선지는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북평5일장(매월 3일, 8일)이며, 학생들의 시선에서 북평5일장의 장(場)길에 대한 취재활동을 하였다. 다음 2차 답사행선지는 임계5일장(매월 5일, 10일)과 백봉령 옛길이며 7월중에 답사를 떠날 예정이다.

학생들의 취재 기사 |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북평 5일장

지난 13일 동해시 북평5일장은 1932년부터 북평동과 구미동(九美洞) 사이의 갖길로 옮겼다. 과거의 장터 (구장터)인 곳은 1930년에 일본사람들이 구장터에 들어와서 상가를 지었다고 한다. 북평장의 상징이었던 우시장이 있고 삼베를 파는 곳, 어물촌 등이 있다. 지금의 장터는 원래 우시장이었고 우시장엔 상인과 농민이 거래하면서 소를 팔기도 하였다. 우시장이 폐쇄되기 전 보다 폐쇄 후 우시장의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고 소들은 하루에 100여 마리가 거래되었고 주로 새벽에 거래가 되었다. 우시장엔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우시장을 하루 이틀정도 더 열었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첫날에 열리는 우시장의 소들을 거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의 소들을 관리해주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북평장에 유명한 삼베를 파는 곳 대마를 재배해 삼베를 지어 입었고 그 당시 삼베는 70~100만원으로 고가여서, 예약 구매를 했다고 한다. 수작업으로 만든 삼베를 파는 곳은 지금의 시장에선 찾기 어렵다. 그리고 보통 농기구는 직접 만들지만 현대사회가 되어서 농기구의 수요도 줄어들었다. 북평장에서만 볼 수 있는 어물촌 구시장과 지금의 어물촌은 달라진 것은 없다. 지금의 북평장엔 어물촌 뿐만 아니라 옷, 나무, 장식품, 모자, 먹거리, 산나물, 신발, 화장품, 책, 배개 이불, 기름, 술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지금의 장에서 엿볼 수 있었다.

정선문화원 향토기자단 공동취재 | 김진하, 서유정, 유지영, 전은정, 안정혜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성남문화원

제9회 송산 어린이 백일장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6월 1일, ‘제9회 송산 어린이 백일장’을 중원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여말선초의 은둔지

사로서 송백(松柏)과 같은 의기충절을 역사 위에 남긴 송산(松山) 조 견(趙狷, 1351~1425)선생의 성심스러운 삶의 도와 청백리 정신을 현대의 어린이들에게 계승시키기 위해 성남문화원이 매년 주최하는 <송산 어린이 백일장>이 금년 9번째로 개최되면서 명실상부 어린이들의 글짓기 한마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남시 초등학교 4·5·6학년 2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백일장은 운문부(동시·동요·시조시)와 산문부(편지·일기·기행문)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당일 예심을 거친 64명 중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입상자 총 32명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성남시 향토유적 제3호인 '송산 조 견 선생 묘소(중원구 여수동 산 30번지)' 앞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성남문화원

제14회, 학술회의 개최 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를 밝힌다 성남 발전의 태동 '모란' 지역 발전과정 집중 조명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모란니즈 웨딩홀에서 '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14회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미래형 첨단도시인 성남시 발전의 태동이라 할 수 있는 '모란' 지역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특히, '故김창숙' 단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모란 개척단>의 모란지역 개간사업 전개과정과 전국적 규모로 성장한 <모란시장>을 보는 사회사적 의의 및 <모란시장>이 성남의 대표적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발전 방향, 모란시장 일대의 간판을 통해 본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고찰 등을 발표했다.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은 '모란 지역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모란 개척단)의 피땀 어린 새마을 개간사업의 역사가 곧, 성남시 태동의 뿌리로 뻗친 격이다"라며, "모란의 시작은 미미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상업지역으로서, '5일 장터'가 된 오늘의 '모란시장' 시골 장터 분위기는 성남시 브랜드의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이날, 김시천 예비역 육군 소장(故김창숙 아들)은 '모란개척단, 그들의 노고'라는 주제로 유년시절의 기억과 유족으로 들었던 당시의 모란을 회고했다.



주제발표 좌장은 문수진 신구대 한국사 명예교수가 맡고, '모란시장의 과거와 미래' 주제는 윤종준 성남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모란 시장의 사회사적 성격' 주제는 이수철 연세대 박사과정, '모란시장의 발전방향 모색' 주제는 이상열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간판을 통해 본 역사와 문화(성남 모란 시장의 간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손환일 경기대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고희영 성남시의회 의원, 김시천 예비역 육군 소장(故김창숙 아들), 조남두 신구대학 교수, 한성심 성남시의회 의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모란개척단원’ 간담회



한편, 학술회의에 앞서 지난 3월 17일 성남문화원에서는 ‘모란 개척단원’ 간담회가 열렸다. 현재 친목회로 활동하는 최한성 회장과 최대순 총무, 원용현 회원을 모시고, 한춘섭 원장과 윤종준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모란의 개척 당시 모습과 단원들의 주요활동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를 들

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녹취록과 당시 사진, 보도자료 등은 학술회의의 발표 자료로 쓰였으며, 이번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부록으로 첨부됐다.

문경문화원

‘펼떡이는 주문진 시장’ 문화탐방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6월 9일 문경문화원 문화학교 180명을 인솔하여, 강릉시와 강릉문화원의 후원으로 ‘펼떡이는 주문진 시장’ 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문경문화원 문경문화학교는 22개과정 530여명의 시민들이, ‘나를 새롭게 지역을 새롭게’ 라는 목표 아래 열정적으로 수강하고 있으며, 문경문화원은 이런 수강생들의 안목을 키워,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매년 외부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탐방은 동해안의 가장 큰 어시장 중의 하나인 주문진 시장을 비롯하여, 주문진 주변의 문화재를 탐방하였다. 주문진항은 내수 면적이 21만㎡크기인 연안항이며, 오징어, 명태, 꽂치 등이 주로 반입되는 동해안 유수의 어업전진기지로 호황을 누리는 곳이다. 또 ‘소돌 바위’는 일억 오천만년 전 주라기시대에 지각변동으로 지상에 솟은 바위로써, 바위 밑에서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면 모든 소원이 바리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전설이 있고, 특히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지식을 낳을 수 있기를 소원하면 지식을 낳는다고 하여 「소원바위」, 「아들 바위」라 불리지고 있다.

채대진 원장은 ‘매년 우리 문화학교를 찾아 배우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분들 중에서 문화탐방을 매우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 참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며, '시민들의 평생교육 열기를 지역발전이 이어지도록 문화원이 그 역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화 창조!** **'2009 어르신문화학교' 개강**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신현국 문경시장과 김학모 향토사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4일 오전 10시 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2009 어르신문화학교'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문경소리공연단' 운영에 들어갔다.



2007년부터 문경문화원이 유치한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경시가 후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2년 동안 1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향토민요 6수를 전수 받고, 2008년에는 전국 실버문화축제에서 '대상' 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향토민요(강사 송옥자)와 문경을 주제로 부른 현대 전통가요(강사 윤석구)를 소리와 악기(강사 김상수)로 연주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를 무대에 올려 본격적으로 '문경소리공연단' 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채대진 문화원장은 개강사에서 '문경의 소리를 관광자원화하고, 홍보지원화해서 어르신들이 살아있는 문경의 문화를 보여 줄 수 있게 운영하겠다.' 고 포부를 밝히고, '신현국 시장

의 문화에 대한 큰 관심과 배려로 영강문화센터가 착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 문화학교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고 자랑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축사에서 '이제 문경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활기찬 도시로 변모했고, 문경이 하면 다르다는 이야기를 외부에서 많이 듣는다며, 이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어르신들의 이런 열정을 한데 묶어 인구가 늘어나는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고 다짐하고, '올해 말이 되면 문경의 지역발전 모습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 며, '국군체육부대 7월 내 착공, 성신산업 준공, 알루텍 문경공장 기공, 대성계전 준공, 마성산업단지 증설과 공장 기공 등, 문경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고 설명,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고로 전환시켜 지방문화원을 '어르신문화거점센터' 로 육성한다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야심찬 계획으로 운영하며, 문경문화원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선정한 전국 20개 전략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문경문화원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역할을 증진하였고, 문화원을 '문화생산기지' 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무주문화원**

늘인 김환태 탄생 100주년 기념문학제

한국비평문학의 효시이자 민족문학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 늘인 김환태(1909-1944)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8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무주문화원으로 주최로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제를 개최하였다. 그와 발맞춰 늘인 김환태 선생 탄생 기념 문집을 발간하였다.

강동문화원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아산 현충사와 외암리 민속마을 답사

6월 11일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에서 주관하는 제3기 강동 문화대학에서는 아산으로 수강생들과 함께 문화유적답사를 떠났다. 강동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네 번째 문화유적 답사인 이번 답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아산의 현충사에서 난중일기와 다른 유물들을 보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다시 기려보는 시간을 갖고, 민속마을·전통건축물 보존지구 제2호로 지정된 외암리 민속마을을 둘러본다.



또한 고 이종무 화백이 설립한 당림 미술관을 견학, 문화유적지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 시대를 살다간 예술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다. 강동문화대학은 1기 때부터 지금 3기에 이르기까지 실내 학습과 현장 학습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살아있는 문화와 예술을 느낄 기회

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해 왔다. 제1기 문화대학 때는 수강생들과 함께 원주로 답사를 떠났다. 토지문학공원에서 거장 박경리의 집필실을 살펴봤고, 운곡 원천석 선생의 유택과 구룡사를 다녀왔다.

문학계의 별로 남은 박경리 선생의 흔적을 살펴보고, 선현의 유적지에서 그의 지혜로운 삶의 상고했다. 두 번째 답사는 가을빛이 무르익어가는 작년 10월 문화대학 2기 수강생들과 함께 문경으로 다녀왔다. 호국유적인 문경의 조령관, 조곡관, 주흘관을 걸으며 가을빛에 곱게 물든 단풍과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 속에서 문화적 향취와 고고한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3월에는 문화원 회원들과 함께 여주의 명성황후 생가와 세종대왕릉, 그리고 신록사를 다녀왔다. 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묻혀있던 숨은 이야기들과 문화 유적들을 한껏 느끼고 돌아왔다.

강동문화원은 우리나라 지방의 특색 있는 향토문화를 답사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학습을 통한 살아있는 교육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지역을 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제3차 이사회

지난 6월 17일(수) 1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제3차 이사회가 열렸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등 이사 22명, 감사 2명이 참가했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지난 제2차 이사회에서 문화원의 당면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임시총회에 상정할 부의 안건을 검토코자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고 말하며 '특히 전국문화원의 운영과 직결된 본권교부세의 폐지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진행사항 보고와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라고 말하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제1호 안건인 임시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및 지방문화원정관(표준) 변경의 건은 부의하는 것으로 승인하였다. 이어 다문화유지컬 '러브인 아시아' 평가보고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하동 차문화기행, 다문화민족문화축제 다문화성공스토리 방송 제작·방영을 보고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문화원의 날 (가칭) 사업계획(안), 어르신 문화학교 - 나이 없는 날 행사(안), 제주 세계예술공원 조성 협조(안)를 보고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문화 하반기 편집회의

지난 6월 25일(목) 11시에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우리문화 하반기 편집회의가 열렸다. 연합회에서는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과 장상호 총무국장, 문선희 편집팀장, 편집위원으로 김종 위원(광주서구문화원장) 박덕규 위원(교수) 한춘섭 위원(성남문화원장)이 참여해 우리문화 편집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종전 격월간이었던 우리문화의 발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충고하며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김종 위원은 문화라는 것은 늘 한 발짝 앞서는 것이니 발행일을 당길 것을 부탁하며 광고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제목의 참신성을 갖도록 제시했다. 박덕규 위원은 종전에 비해 깔끔해진 디자인을 지적하며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차례의 기획부분을 고민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체 편집과 여백을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춘섭 위원은 업무량 과중으로 힘들 것을 염려하여 성남문화원의 인력 보충을 지원할 테니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9월에 예정 중인 대담의 참여자로 연합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를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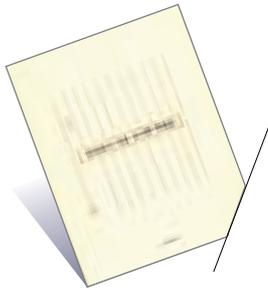
우리문화는 올해부터 월간으로 진행되어 지방문화원과 문화관련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신간 소개



慶北風物
경상북도지회 발행

경북지역의 풍물놀이 사료를 수집하여 경상북도 지회에서 풍물자료집을 발간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김종우 경상북도지회장은 발간사에서 경북 전역이 면면히 이어온 경북인의 자긍과 자존으로 전통과 정체성으로 보존 계승되고 있다고 밝히며 문화 복원 차원으로 경북 23개 시·군 문화원장들의 뜻을 모아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를 열게 되었다고 한다. 그 움직임이 이 책의 공간이 되었다. 경북농악경연대회 개최 경위를 비롯하여 농악의 쇠가락 등 경북지역의 풍물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있다. 사진과 함께 약보까지 소상히 보여주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읽힐만한 책이다.



후지츠카 기증 고서류 목록집
과천문화원 발행

과천문화원에서 후지츠카 기증 고서류 목록집이 나왔다. 선친 치카시 선생이 남긴 추사 관련 자료를 후지츠카 아케나오 선생이 2006년 과천시에 기증하였으며 그 때 기증받은 고서류를 정리한 책이다. 작년에 과천문화원에서 펴낸 '추사자료의 귀향'에 이은 자료집이며 연말에 중요자료와 영인본 발간 등의 자료를 기대할 수 있는 신간이다.

최종수 과천문화원장(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은 인사말에서 추사 선생의 유명한 논설인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의 '다만 심기를 침착하게 갖고 널리 배우고 힘있게 실천하면서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찾는 다'는 한 마디 말만을 오로지 주장하여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구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의 전통이 경시되는 요즘 풍조에 새겨두면 좋을 말이다. 고서류 목록은 경부(經部), 사부(史部), 자부(子部), 집부(集部)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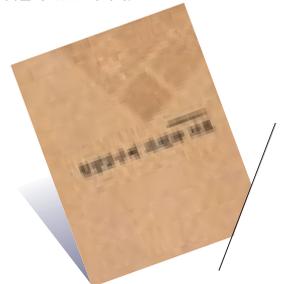
놀인 김한태 탄생 100주년 기념 김한태 전집
무주문화원 발행

한국비평문학의 효시이자 민족문학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 놀인 김한태(1909-1944)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5월28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무주문화원으로 주최로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제를 개최하였다. 그와 발맞춰 놀인 김한태 선생 탄생 기념 문집을 발간하였다. 놀인 선생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순수문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1930-1940년대에 크게 활약한 문학평론가이다. 그는 경향문학과 계급주의 비평에 의해 정치성과 사상성으로 경직된 문단에서 순수문학의 옹호자로서 순수비평의 씨앗을 틔워 놓은 비평문학계의 거두이다. 선생은 고향이 무주이며 이번 전집에는 지금까지 발간된 선생의 문집과 비평글, 수필 그리고 이어령 전 문광부장관의 추모의 글, 글을 엮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권영민 교수의 평과 고인의 장남인 김영진(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의 아버지를 회상하며 쓴 글이 실렸다. 서른다섯에 요절한 문학평론가 김한태가 그의 작품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졸타기와 경기소리의 분향 갈현동
과천문화원 발행

과천문화원에서 갈현동에 관한 자료집을 펴내었다. 지난 과천향토사(1993 발행)와 과천시지(2007)에 이어 과천시의 역사와 문화가 정리된 바탕 위에서 각 동별로 보다 세밀하게 과천을 기록할 필요를 갖고 이번 책자를 발행했다. 최종수 과천문화원장(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은 발간사에서 갈현동은 과천 뭍나무꾼 이아기나 졸타기, 경기소리 뿐만 아니라 거동김의 점조 임금에게 시원한 물맛을 선사한 가자(加資)우물 갈현율림(葛峴栗林) 등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이라 밝히며 여러 질문에도 조사에 협조한 갈현동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화보편을 비롯하여 제1편 삶과 역사, 제2편 명소와 문화유산, 제3편 사람과 삶, 제4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기록 제5편 자료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찬우물 토박이 김석근 옹과의 대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대목, 이순기 가옥의 구조를 밝힌 부분 등 참여자들의 세심한 노력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책이다.



함열남궁씨 과천파 자료
과천문화원 발행

과천문화원에서 과천향토자료집 열세 번째 책자인 함열남궁씨 과천파 자료를 발행했다. 1장에서는 임광석 수집 자료를, 2장에서는 과천동 함열남궁씨 기증자료를, 3장에는 기타자료를 소개해놓았다. 화보집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새끼 꼬는 기계, 재떨이, 호패 등이다. 여전히 이런 물건들을 기억하는 세대와 새롭고 신기하기만한 세대 모두 부담없이 읽을 책이다.

최종수 과천문화원장(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은 발간사에서 책에 실린 민속자료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밝혀줄 소중한 공공자산이라고 밝히며 자료 없이 역사를 서술할 수 없으며 역사를 모르면 내일이 밝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료가 공유될 때 보존도 잘 되어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말했다.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어르신 문화학교

2009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문화예술사업으로 고령화시대 노인층에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문화예술 체험에
이끌 나기, 어릴 나이 없는 '사람들'을 그리는 것이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의 꿈입니다.

주최 |  한국문화재단협의회 주관 | 지방문화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